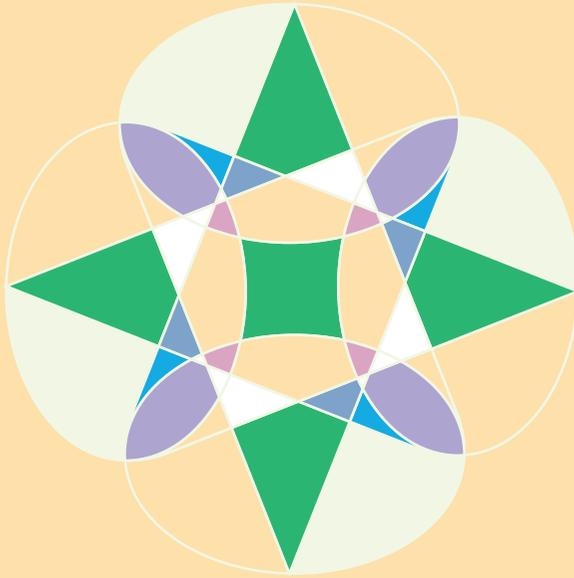


페미니즘으로 민주시민교육 톺아보기

_이진선





_이진선

이진선 _ zizibejs2@gmail.com

징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악기 '징' 처럼 울림을 주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징하게' 살겠다는 의미 등을 부여했다. 페미니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호기심과 재미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의미있는 타인', '곁'이 되고 싶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가 연구지원사업 결과물로서 서울시NPO 지원센터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페미니즘으로 민주시민교육 톺아보기

: 더 예민하게 우리의 페다고지를 잇다

_이진선

목차

프롤로그: 시민활동 여정... 페미니즘, 손을 내밀다	05
-------------------------------	----

1. 민주시민교육이 페미니즘을 만나면

1) '일상의 민주주의'가 화두가 된 민주시민교육	08
2) 페미니즘 인식론 장착하기	09

2. 교육 준비 과정 톺아보기

1)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나?	11
2) 교육장은 어떤가?	13
3) 교육 도구는 어떻게 활용하나?	16

3. 교육 내용 톺아보기

1) 정상성: 무엇을 '정상'이라고 상정하는가?	20
① 가족	
② 몸, 질병	
③ 이성애	
2) 정체성: 왜 '차이'를 '차별'하는가?	33
① 젠더	
② 국적	
③ 인종	
3) 감수성: 어떻게 젠더 감수성을 키워 나갈까?	44
① 언어	
② 외모	
③ 입장	

4. 민주시민교육,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장 55

1) 인터뷰

- ① **에코페미니즘이 시나브로 스며들도록 :**
여성환경연대 김민지 에코젠더팀장 인터뷰
- ② **인권과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
인권교육센터 ‘들’ 정주연(루트), 박지연(연잎) 상임활동가 인터뷰
- ③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서로에게 배움을 실천 :**
‘피스모모’ 김영철 두어스랩 실장 인터뷰
- ④ **울타리를 넘어, 관계 맺는 교육 :**
‘장애여성공감’ 여름 활동가 인터뷰
- ⑤ **이주여성이 삶의 주체가 되는 교육 :**
‘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팀장 인터뷰

2) 간담회

- **시민교육, 교차적으로 만나기 위한 발돋움 :** 92
민주시민교육 담당 활동가 간담회

에필로그: 존재를 있게 하기 위한 잇기 105

교육 기획부터 평가까지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 107

참고문헌 108

참고문헌 외에 추천하고 싶은 책 110

프롤로그: 시민활동 여정... 페미니즘, 손을 내밀다

창피하지만 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한다. 생애에서 정의감이 가장 불타오르던 시절,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나는 ‘평화운동’에 꽂혀 있었다. 시민단체, NGO에서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들어간 단체, 참여연대에서는 ‘평화’ 관련 파트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민생팀’이라는 전혀 다른 부서에 배치되었다. 참여연대는 순환보직 체제였고 들어갈 때 희망부서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나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모두 ‘평화팀’으로 적어 냈다. 그 당시 인사권이 있었던 사무처장 선배에게 한동안 빠져 있었고 “왜 평화팀으로 배치해 주지 않았냐”라고 불멘소리를 했다. 그 후 사무처장이었던 선배는 술자리에서 “민생이 곧 평화다”라면서 위로해 주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나는 운동의 영역을 매우 본질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다.

10년 넘게 시민운동의 한가운데에서 또는 그 주변에 머물면서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과 만나 본 경험은 무엇보다 나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민생팀의 활동 영역은 매우 넓었는데 우스갯소리로 다른 팀에서 맡기가 애매하면 전부 민생팀으로 일이 넘어온다고 할 정도였다. 대학 등록금, 무상급식, 부동산, 재개발, 개인정보, 도박 문제 등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를 다루면서 많이 배웠다. 한편 활동가라는 정체성으로 현장 곳곳을 누비는 이들을 보면서 나의 역할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초라하게만 느껴지기도 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원초적인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나의 손길이 닿았던 논평 하나, 전화 한 통, 서명 하나, 시위 현장에서 시나브로 바뀌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보람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담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의 영역이라는 것이 이어져 있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지만 알기 어려웠던 것을 명징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후에 시민참여팀이라는 부서에서는 시민과 회원들을 위한 행사, 시민교육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시민의 언어’,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잘’ 해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느 순간 내가 시민들을 향해 ‘의식화’할 대상으로만 바라

본 것은 아닌지,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무지몽매’하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반성도 했던 것 같다.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특히 애정을 가지고 초창기 세팅부터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 프로그램 수료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일구어 나가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나의 ‘자리’가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다.

2018년부터는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걸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네트워크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시민교육’을 접하고 고민을 더 뺏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책자도 그 일환 중의 하나이다. 이 글은 그동안 시민운동을 경험하면서 쌓였던 답답함을 풀기 위한 1차적 목적과 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담고 있다. 시민운동 경험이 10년 넘어도 ‘전문가’로 취급해주지 않는 행정의 현실이지만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이 있다는 자신감을 장착하고 의미를 부여했다.

워낙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 현안을 챙기고 급하게 쫓기다 보면 활동가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기존의 관성대로 활동하기 쉽다. 시민교육도 마찬가지로 유형에 따라 또는 참여자 수요가 많을 만한 주제만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교육 진행에서도 ‘방법론’, ‘스킬’에만 집중하다 기본적인 인권적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나 또한 활동 경험을 돌아보았다. 누구나 인식론적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다. 간과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놓치고 있었던 감수성은 무엇이었는지, 배제했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등을 되돌아본다. 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을 늘 성찰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각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교육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해 보고 싶다. 특히 페미니즘 관점으로 함께 사유해 보자는 것이다.

여성학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왜 ‘여성학’이냐는 질문을 주변에서 많이 받았다. 그동안 ‘여성운동’ 쪽에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기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에게 “꼴페미나”라는 ‘예의 없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나를 잘 알고 있

었던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할 것을 한다”라고 응원해 주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동안 설명하기 어려웠던 언어를 찾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페미니즘 공부를 하려고 제안했을 때 처음 들었던 말은 “그건 대학 때나 하는 거 아니야”였는데 페미니즘을 ‘교양과목’ 정도로 취급하고, ‘부문운동’으로 상정해 왔던 지난 과거는 이제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며,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나침반이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다.

이 글의 앞부분에는 흔히 놓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교육 도구를 체크해 보고, 중간에는 정상성, 정체성, 감수성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뉘 주의 깊게 나뉘 보고 싶은 주제를 설정했다. 2021년 6월에 지인들을 통해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육 참가자로서 또는 진행자로서 겪었던 사례를 받았고, 일부 각색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교육 모니터링을 하면서 경험했던 나의 사례, 주변에서 들었던 교육 현장의 케이스도 가지고 왔다.

한편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5곳의 시민단체 담당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답았다. 평소에 페미니즘 관점과 인권 감수성을 유지하고 교차 시민교육을 잘하고 있는 시민단체라 생각해 선정하였고, 이 글의 방향성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 싶었다. 시간적 제약으로 만나보지 못한 다른 시민단체들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싶다. 또한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교육 기획과 진행, 평가 과정을 토로하면서 시민단체들의 시민교육에 대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교육은 사유하게 하는 매개체이며 사람들과 만나 경험을 나누는 장(場)인 동시에 실천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 관심을 보인 독자 또한 각자의 교육 철학, 페다고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현장 속에서 나누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주시민교육이 페미니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할지, 그 여정을 함께 상상해 보자.

1. 민주시민교육이 페미니즘을 만나면

“우리 단체는 민주시민교육 안 하고 있는데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분명히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듯, 민주시민교육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글은 민주시민교육이 등장한 역사나 맥락, 정책 등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앞 부분에서는 몇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만 언급해 보고자 한다.

1) ‘일상의 민주주의’가 화두가 된 민주시민교육

초기 연구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적 안정과 통합, 효율성 등 정치사회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점차적으로 일상생활의 원리로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생활 전체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¹⁾ “무엇보다 무엇이 민주적인가?”,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자체도 구성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정치적 차원만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민주적 시민성을 계발하고 연마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²⁾

시민사회단체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시민교육을 추진해 왔다. 그 후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주입식 강의 위주, 일방향식 구성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고민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1997년 민주시민교육포럼이 결성되고, 독일 아데나워재단의 정치교육 사례가 소개되는 등 참여자 중심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1) 염경미(2018), 『선생님, 민주시민교육이 뭐예요?』 살림터, 43쪽.

2) 장은주(2020),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우리는 시민입니다』, 피어나, 67쪽.

났다. 제도권 내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는데, 2000년대부터 선관위 선거연수원,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합류하였다. 또한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다.³⁾

이렇게 시민교육은 현재 민관 영역에서 전국적으로 폭넓게 확장되고 있다. 시민교육 강사, 퍼실리테이터(촉진자) 등 수많은 양성과정을 통해 교육, 워크숍 진행자들의 활동 영역도 점점 넓혀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교육진행자들은 교육의 ‘방법론’, ‘스킬’에만 더욱 집중하다 보니 젠더,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시민교육 진행자들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하는 제안이다.

2) 페미니즘 인식론 장착하기

시민교육을 하는 활동가 중에 ‘페미니즘’을 기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으로 시작하면서 말을 꺼내는데, 듣다 보면 이미 ‘페미니즘’이 장착되어 있는 사람도 많다. 특히 2015년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페미니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자가 남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을 포함한 남성, 타자들의 해방에 대한 전망을 갖고 시작된 사상이자, 운동, 지식이다.⁴⁾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듯 ‘페미니즘’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떤 이는 자신이 과연 ‘진짜’ 페미니스트인지 헷갈려하고, 혹시나 페미니즘에 민폐를 끼칠까 봐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다른 이들, 스스로 ‘완성형’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하는 이들은 페미니즘을 걱정하면서 단속에 앞장선다. 정작 삶을 외면한 검증이 난무하면서 “페미니스트는 이래야 한다”라고 훈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이지 않을까.⁵⁾ ‘일상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듯, 페미니즘 또한 그

3) 이필구(2018), 「민주시민교육과 영역별 교육」,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전국민주시민교육 토론회 자료집

4) 김은실(2018),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휴머니스트, 19쪽.

5) 이라영(2018), 『진짜 페미니스트는 없다』, 동녘, 46쪽.

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적어도 부당하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윤리적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사회제도로 전혀 지지받지 못하거나 덜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법, 움직이지 않는 벽처럼 화석화되는 역사에 맞서는 방법 등을 질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은 서로를 낮게 만드는 말이며, 이 말 안에 존재하는 역사는 세상의 무수한 것을 개선한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⁶⁾

이미 페미니즘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기본적인 정치적 지향성은 페미니즘이 계급, 연령, 지역, 인종 등 다양한 차이를 지닌 존재들의 해방을 지향하는 실천이라는 인식이다.⁷⁾ 그렇기에 페미니즘 관점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훑어본다는 것은 차이와 다양성에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무엇이 ‘보편’이고, ‘객관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프레임을 전환한다.

우리가 기존의 관성대로 하는 교육, 어떤 변화도 일구어 내지 못하는 교육은 사장되기 쉽다. 페미니즘 인식론을 장착하면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내고, 다르게 생각하는 길이 보인다. 인식의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 다른 입장에서 사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사회운동이고 사회정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⁸⁾

그와 함께 이 글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교차’라고 할 수 있는데, 분절화되어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을 교차적으로 사고하자는 제안을 담고 싶다. 여기에서 ‘교차’는 영역을 단순히 ‘첨가’나 ‘섞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환경, 노동, 장애, 인종, 지역, 동물 등의 영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간과했던 부분을 가시화하는 일이다. 무엇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는지 함께 훑어보자.

6) 사라 아메드(2017),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이경미 옮김, 동녘, 10~11쪽.

7) 권명아(2019),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갈무리, 15쪽.

8) 정희진(2017), 『낮선 시선』, 교양인, 17쪽.

2. 교육 준비 과정 돌아보기

어떤 사람이 A라는 교육을 맡았다고 가정하자.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 기획부터 시작해서 홍보, 모집 이후의 진행,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특별히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많은 참가자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유명한 강사를 부르거나 유행하는 교육을 기획하여 사전 홍보에 더 많은 공을 들일 것이고, 참가자의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흥미로운 교육 진행 및 내용을 더 충실하게 준비할 것이다.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각자 설정한 교육의 목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사전 준비가 이루어진다.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다음의 부분을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짚어보자.

1)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나?

참가자 대상층은 교육 준비 과정에서 수준을 가늠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노동권을 주제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달라지는 것이 많을 것이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교육 방법 등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 전태일, YH무역 사건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한번은 ‘할머니’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있다. 70대 이상의 노인들만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처음이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PPT 자료를 글씨는 거의 없애고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채웠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맥락과 주제를 접목하기 위한 질문을 준비해 갔다. 이렇게 특정 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는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보통은 연령대별 또는 직군에 따라 나뉘어 교육 진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매년 그렇지 않다. 그나마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참가자들이라면 교육 진행이 수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외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다양한’이란 단어의 의미 속에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는 사람들

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교육진행자 C는 이런 경험이 있다. 참가자 간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한 명이 늦게 참여했다. 그 순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았으나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이 누군가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교육 이전에 어떤 참가자가 있는지 정보를 얻어 특정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지는 담당자의 감수성과 맥락이 맞는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나 기관 등에서 의뢰받을 경우에는 교육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묻는 게 좋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업을 요청해 온 경우, 나는 담당 교사와 통화하면서 기본적으로 인원수, 성별 비율 외에도 이전에 비슷한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지, 학급 분위기는 어떤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 다문화 학생이 있는지 등을 묻는다.

그중 참가자 분석을 위해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 중의 하나는 ‘성별’이다. ‘여초’ 또는 ‘남초’인지에 따라 그 교육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것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 나 또한 ‘여학교’ 보다 ‘남학교’에 갈 때 더 신경을 쓰는 편이다. 교육진행자가 ‘남성’이나 ‘여성’이냐에 따라, 어떤 주제로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다.

어떤 참가자가 올지 특정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원탁토론에서는 ‘여초’일 때 토론이 더 원활하며 분위기가 훨씬 좋다. 물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젠더’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은 교육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권위의식의 내면이 발로되어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해 봐라 하는 태도나 눈빛에 교육진행자는 움츠러들게 마련이다. 경청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주어 의견을 목살하는 경우도 목도하게 된다. 특히 교육진행자가 자신보다 ‘어린 여성’인 경우에는 더 적나라해지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성 교육진행자가 하면 신뢰를 보인다. 나이 많은 남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왔

을 때 “남자 바뀌”라는 말을 여성 활동가라면 꽤나 들어봤을 것이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 여성 강사가 자신의 머리를 ‘숏컷’으로 자른 이유를 두고 그런 ‘중성스러움’이 청중에게 더욱 신뢰도를 높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성은 교육할 때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게 현실이다. 긴 머리카락이나 하늘하늘한 치마 등 ‘여성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이 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가? 나 또한 50대 이상의 남성이 모여 있는 집단에 가게 되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이도록 하는 수고를 은연중에 하고 있다. 과연 누가 바뀌어야 하는가?

한편 최근 온라인 교육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수어 통역, 문자 통역이 병행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OTT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비장애인도 한글자막 서비스가 얼마나 편리한지 깨닫게 된다. 나 또한 집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한글자막을 무조건 틀어놓는 편인데 놓치기 쉬운 대사를 알게 해주어 매우 유용하다. 문자 통역이 있는 강의를 들을 때도 내가 들었던 그 단어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 좋다. 이렇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한 상황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처럼 취급하며 일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교육에서도 이런 것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세상에 가장 평화로운 단어가 있다면 그건 ‘누구나’가 아닐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세상, 어쩌면 이 모든 일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⁹⁾ 여러분은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

2) 교육장은 어떤가?

최근 코로나19 탓에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 교육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교육장은 참가자 간의 라포가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어떤 분위기의 공간인지에 따라 교육의 흐름이 바뀌기도 한다.

한번은 수능을 막 끝낸 고3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한 학교에 갔는데, 담당 교사

9) 이미화(2021), 『수어』, 인디고, 110쪽.

가 나를 교실이 아니라 강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20명 남짓의 학생들과 한 학급에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대형 강당에서 약 150명의 학생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교육을 의뢰한 단체와 학교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 당연히 모둠형 토론 방식의 수업과 내가 준비해 갔던 교육 도구는 사용하지도 못한 채 거의 일방적인 강의 방식이 되어 버렸다. 특히 그 당시에는 교육장의 의자 배치가 한몫할 수밖에 없었다. 대형 강의장이다 보니 고정형 접이식 의자가 전부 앞을 향해 세팅되어 있어 옮길 수도 없었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마이크도 유선마이크라 돌아다닐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대형 강당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쌍방향보다는 일방향이 되기 쉽기 때문에 참가자 또한 마음가짐이 ‘참가’라기보다는 ‘청취’ 수준이 되어 소극적이기 쉽다.

교육장이 낯선 곳이라면, 교육장에 교육진행자가 원하는 교육 방식의 자리배치가 가능한지 미리 살피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특히 교육 시작 전에 자리 배치가 되어 있어야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나는 주로 5~6개 모둠으로 책상을 세팅해 놓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때 교육진행자와 등지지 않게 배치해야 참가자 모두와 시선을 맞출 수 있다.

어떤 공간에서는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은은한 조명과 안정감을 주는 파스텔톤의 벽지, 상쾌한 향 내음, 익숙한 멜로디는 발을 들여 놓는 순간, 1차로 나를 환대하는 것들이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물리적인 조건을 갖춘 교육장 또한 많지는 않다. 그 대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분위기를 전환시켜 볼 수는 있다. 작은 화분이나 꽃, 향초를 활용해 볼 수 있고, 교육 시작 전이나 쉬는 시간에 음악을 틀어 허전함을 메워 볼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교육장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싶다. 먼저 불특정 다수가 오게 되는 교육장까지 오는 과정이 어땠는가? 접근하기가 용이했는가?

나는 단체나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곳을 안내하는 약도를 유심히 보는 편이다. 주소만 올려놨는지, 처음 보면 절대 모를 약도만 올려놨는지, 아니면 친절하게 방향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는지를 살펴본다. 아무리 GPS가 발달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안내부터가 나는 그 단체 또는 기관의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은행을 바라보고 좌회전’이라고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었지만, 몇 년 전에 그 은행은 다른 상점으로 바뀌어 있어 헤맸던 경험을 되돌아 보았을 때 업데이트 되지 않았던 그 약도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 모집을 했지만 그 교육장까지는 “알아서 오세요”라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휴대전화로 지도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나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장으로 오려면 지하철 몇 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식의 ‘자세하고 친절함’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교육장에 도착했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다? 다음에 나오는 장애여성공감 인터뷰 내용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강사나 교육진행자를 비장애인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한번 들여다보자. D단체의 총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행사장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동대표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었기에 행사 날 무대에 올라가 인사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담당 활동가가 행사 주최측에 연락해 빨리 고칠 수 있었는데, 황당했던 것은 그 행사장이 평소에는 지역에서 교육장으로 자주 사용되는 곳이었다. 그 당시에는 장기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수리를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교육장은 시민사회단체에 대여해 주는 곳인데, 어느 날 보니 휠체어를 탄 분들을 포함해서 몇 분이 그 곳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건물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 또한 오래 이용해 온 그 교육장의 건물에 그런 사항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들에게 이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안내해 드렸지만 그 찝찝했던 마음이 오래 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수도권 숙박시설 1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 49%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¹⁰⁾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교육장에 대해 점검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10) 이슬기, 「호텔 찾아 삼만리? 장애인들 ‘고단’」, 『에이블 뉴스』, 2021년 7월 2일(<https://www.ablenews.co.kr/News/Include/NewsContentInc.aspx?NewsCode=003020210702135028443576>).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권장사

까? 교육장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면 혹시나 이용할 수 없게 창고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체크해 봐야 한다. 의심되는 독자가 있다면 평소에 가까운 장애인화장실 한번 살펴보시라. 태반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 교육 도구는 어떻게 활용하나?

최근에는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용 도구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게임 도구는 팀빌딩(team building) 등을 하기에 좋은 매개체가 되어 흥미를 유발시킨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도구를 활용하다 보면 교육 도입에서 마음 문을 열기가 비교적 쉬워지고, 참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세가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각 단체나 기관에서 교육용 도구를 개발해서 유료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 내용에 맞춰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 가기도 한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스브레이킹을 위해 참가자 간 어깨를 주무른다거나 손을 만지며 게임을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상황도 있지만, 잘 모르는 참가자 간 몸을 터치하는 행위는 불편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빈도가 늘었다. 나는 간단하게 이런 것을 만들어 갈 때도 있다. 포천쿠きを 콘셉트로 참가자가 작은 박스 안에 든 종이를 하나씩 뽑아 거기에 적힌 질문에 답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최근 일주일 안에 가장 많이 말한 단어는?’, ‘요즘 내 곁에서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같은 간단한 질문이지만 참가자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또 간단하면서도 흥미를 유발하기 쉬워 자주 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돌아가면서 얼굴 그려주기이다. A4용지와 색펜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설명도 어렵지 않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주로 이렇게 활용해 왔다. 참가자가 둘러앉아서 A4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옆사람에게 그 종이를 넘긴다. 그러면 각자가 눈, 코, 입, 머리카락 등을 이름이 적힌 사람 순으로 그려 얼굴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에 완성된 그림은 당사자에게 주면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멘트를 함께 건넨다. 그림을 그리는 취지는 한

항과 의무사항이 있지만 의무사항부터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 나와 다른 부분까지도 서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 방법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취지와 다르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을 시기인 청소년들과 하게 되었을 때는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서로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토라지기도 한다. 도입부에서부터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건 정말 역효과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비단 청소년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성인들도 때때로 취지와 다르게 그림 자체에만 몰입하면서 외모 품평을 마다하지 않기도 한다. 한번은 외부 워크숍에 참여했는데, 그때 교육진행자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마지막이 정말 가관이었다. 각자 완성된 그림을 보고 6개 모뎀 안에서 실제 얼굴과 제일 닮은 그림을 하나씩 뽑고 해당 참가자를 일으켜 세운 뒤 그림과 얼굴을 비교하면서 유머 코드로 활용하고 있었다. 다들 깔깔깔 웃고 있는 그 워크숍에서 불편했던 사람은 비단 나뿐이었을까.

한편 또 자주 사용하고 있는 교육 도구 중에 ‘신호등카드’가 있다. 빨강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4가지 색깔의 종이를 사용해 토론하는 방식인데, 참가자가 너무 많으면 모든 사람의 생각을 일일이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도구를 활용하면 전체적인 의견의 경향성을 알기에 좋다. 또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생각을 열어주기 위해 대답을 4가지로 나눠 자신의 의견과 비슷한 색깔에 해당되는 답을 찾으면 대답하기가 비교적 쉬워진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빨리 없어져야 할 문화는?”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음과 같이 보기를 준다. ‘파랑은 가부장주의’, ‘빨강은 학벌주의’, ‘초록은 연령주의’, ‘노랑은 기타’.

4가지 색깔의 종이는 별도로 제작하기도 하지만 간편하게 살 수 있는 색종이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자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프로젝트 결에서는 대규모 원탁 토론 행사에서 신호등카드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육 도구가 누군가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를 고민하다가 신호등카드 또한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색깔이상자 중 어떤 이들은 신호등 색깔을 구분할 수 없다. 한국 인구 중 색깔이상은 전체 남자

인구의 5~8%(여성은 0.5%)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과거에는 색맹, 색약, 색신 등으로 부르던 것을 요즘은 모두 색각이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색각장애가 있으면 특정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분하지 못한다.¹¹⁾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나에게 자신이 ‘색맹’이라고 고백한 적 있다. 그 당시에는 미술시간에 꽤 불편하겠다 정도로 단순하게만 생각했지, 그 친구가 그것을 말해주기까지의 과정과 그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다.

세상에 내놓는 디자인은 출시 전에 UI(User Interface), UX(User Experience), 접근성(Accessibility)검토를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외국에서는 누구나 사용에 차별이 없고 편리한 디자인을 의미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연구되고 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색을 보는’ 이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등한 접근 가능성을 위해서는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 도구 또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교육에서 신호등 토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접 색지에 초록색, 빨강색 등 글씨를 적어 가지고 간다. 번거롭다고 생각되는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것이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PPT를 사용할 때 이미지, 사진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PPT 슬라이드 하나에 글씨를 많이 넣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지를 빈번하게 넣게 되는데, 이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이미지가 오히려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긴 머리, 분홍색 등 여성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보여 준다거나 누군가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충을 겨누고 있는 모습 등은 피해야 한다.

2015년 즈음에 터키 해변에 밀려온 시리아 난민 아이의 시신이 SNS를 통해 퍼져 나갔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이때 이 사진 한 장이 시리아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 후 교육 현장에서도 이 사진을 활용하여 난민 문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자주 목도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특히 제3세계 어린이들의 모습, 기아에 허덕이며 옷가지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전시’해야만 교육 내용을 제대

11) 진달래, 「“색깔 맞혀 봐” 놀림당하고... “색깔 틀려서” 취업 힘들고」, 『한국일보』, 2019년 9월 2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30082087140>

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최근 국제개발 분야에서도 ‘빈곤포르노’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전달이 꼭 자극적이어야만 효과적인 것이 아님을, 감동은 스토리텔링에서 올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교육 내용 훑아보기

교육 내용 훑아보기에서는 정상성, 정체성, 감수성이라는 주요 카테고리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한다. 앞서 나왔던 사례는 교육 기획 단계였다면 다음은 실제 교육 진행 과정에서 함께 생각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다. 앞부분에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으며, 뒷부분에는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하였다. 어떤 이에게는 매우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생각해보지 못한 지점일 수도 있다. 평소 교육 진행에서 자신의 언어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1) 정상성: 무엇을 ‘정상’이라고 상정하는가?

우리는 흔히 누구를 향해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말을 쓴다. 정상(正常)을 국어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라고 나온다. 조금 튀는 행동을 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일탈을 하게 되는 경우 ‘정상’에서 벗어난 경우로 본다. 모든 기준의 올바름을 ‘정상’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일까? 그럼 나머지의 경우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인가?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아 보면 왜 두발 규정이 귀밑 몇 센티미터로 정해져 있는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왜 매번 해야 하는지, 여학생 교복은 왜 추운데도 치마여야 했는지 등 누군가가 정해 놓은 그 규정에 의문을 품었지만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의 기준은 변화하고야 만다. 그 의문을 품고 행동하는 자들,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정상’이라는 그 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

① 가족

‘가족’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이성애 부부와 자녀가 있는 4인 가족 형태가 바로 생각나는가? ‘따뜻함’,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 ‘휴식’ 같은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정상’의 범위가 생겨난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일을 하는 남편’, ‘가정을 돌보는 아내’, ‘정상 자녀’를 상정한다. 비혼이나 다양한 가족의 형태인 동거가족, 동성결혼가족, 무자녀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등을 바로 떠올리지 않게 만든다.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나눠 ‘비정상가족’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따라온다. 이미 통계적으로 ‘정상가족’이 다수가 아닌 상황이 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이러한 ‘정상가족’ 프레임이 크게 작동하고 있다.

특히 가족 내의 성별 고정관념은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런 시험문제가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 몇 년 전에 출제되었다. “다음과 같은 일은 주로 누가 하는 일인가요? 저녁 준비, 장보기, 빨래하기, 청소하기”라는 문제였다. 객관식 보기에는 삼촌, 어머니, 나, 동생, 할아버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답을 ‘어머니’라고 체크하지 않으면 틀린 답이 된다. 이런 시험문제를 만든 특정 교사만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가? 교육진행자 또한 아무렇지 않게 참가자를 ‘정상가족’의 한 형태라고 상정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자. 이 프레임을 흔들어 놓는 것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태어나면서 가족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한국에서 노인 학대의 약 90%는 가족 안에서 발생한다.¹²⁾ 지난 5년간 가정폭력 가해자는 약 21만 명(그중 80%는 남성)¹³⁾이다. 가족 내 ‘친밀한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통해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피해를 털어놓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 채 그냥 지내는 경우가 대다수이

12) 보건복지부(2019),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13) 여성의 전화 홈페이지(http://hotline.or.kr/board_statistics/67398) 참고.

다.¹⁴⁾ 그 이면에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 다음의 사례와 같이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책을 무조건 ‘가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 왜 굳이 가족 유지를 고수하는 것일까?

“일단 1차적으로 그 상황에서 피해자를 분리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그것조차도 하지 않잖아요.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뇌리에 되게 깊이 남았던 게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해 봐야 가정 일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20년 정도가 지나고 최근에도 들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만약 그 상황에서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바라는 건 아버지로부터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떼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더는 자의로 엄마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아버지에게 누군가 외부에서 제3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일단은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상담이 아니라.” (사례 c)15)

최근에는 이런 사건도 자주 목도한다. 예를 들면 ‘일가족 동반자살 사건’ 같은 뉴스이다.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부모는 자녀를 대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은 채 마음대로 목숨을 결정한다. 이런 사건은 자식의 생명을 동의 없이 부모가 앗아간 학대의 일종이다.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부모의 그릇된 인식이 최악으로 몰고 간다. 최근에는 ‘일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사건’으로 불려야 한다고 지적한다.¹⁶⁾ 자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무수하게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상처가 존재하지 않았던가. 아직도 학부모를 만나는 교육에서 이 주제로 토론을 하다 보면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출 청소년이 발생하는 원인도 그 세부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지나친 간섭,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폭행 등으로 나타난다.¹⁷⁾ 흔히 ‘부모 없는 아이’, ‘비정상 가족’에서 청소년들이 ‘비뚤어질’ 것이라는 편견은 비껴간다.

14) 친족 내 성폭력 피해자의 과반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상담소를 찾는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상담 통계 및 동향분석』 참고).

15) 여성의 전화(2020),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 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16) 이근아, 「일가족 동반 자살? 엄연한 자녀 살해!」, 『서울신문』, 2020년 3월 1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2016004>

17) 남미애·홍봉선·육혜련·김은경(2012),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내실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다음과 같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 교육진행자의 사례를 살펴보자.

#장면 1: “엄마들이 너무 나대면 안 되지.”

유치원 부모교육에서 한 강사가 초빙되어 강의를 하는데,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엄마들이 너무 나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엄마들의 소위 치맛바람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엄마라는 것이다. 그 교육에는 아빠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 아빠의 역할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강의를 듣고 있던 J의 남편은 “앞으로 부모교육은 당신만 가도 되겠다”라고 말했다.

#장면 2: 자녀 있는 사람들끼리만 그룹

약 2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교육진행자가 소규모 그룹을 만들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 “이쪽은 자녀가 딸만 있는 사람들, 이쪽은 아들만 있는 사람들, 이쪽은 딸과 아들 모두 있는 사람들...” 참가자 K는 그때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다. 그 교육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은 혼자뿐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K에게 와서 함께 그룹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를 잃어 상처가 있었던 K는 그날 교육이 끝나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장면 3: “남편 밥 차려주고 오셨어요?”

교육 참가자 B는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비혼모’이다. 평소에 너무 만나고 싶었던 유명 강사가 동네에서 저녁 강의를 한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찾았다. 그 강사는 도입부에서 “어머님들, 남편 밥은 차려주고 오셨어요?”라고 물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밥 안 차려주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3가지 장면을 3인칭 관점에서 구성했지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이 느껴졌는가?

장면 1과 장면 3처럼 가족의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교과서나 미디어 등에서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아빠는 신문을 보고 있는 이러한 고리타분한 삽화가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특정 역할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

또한 장면 2와 장면 3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느 정도 연령대에 접어들었으면 당연

히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상정한다. 기존의 정상성을 거부하고 비혼 등 다양한 가족 구성은 행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것은 없고, 오로지 결혼 중심의 삶만이 ‘안정적’이라고 강조한다. 2018년에 20대를 대상으로 행복 가치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¹⁸⁾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온 1위가 ‘안정’(42.4%), 2위는 ‘가족’(39.5%)이었다. 가족과 안정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으로 많이 나온 것을 보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족=안정’이라는 프레임에 고착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화두로 떠올랐으며,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비혼 1세대의 탄생』 등에서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존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던 관습을 다른 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돌봄을 합의하고 그 관계를 등록하면 사회보장제도의 권리를 제공해 주는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7년 만에 재추진된다고 하니 ‘가족의 진화’를 기대해 본다. 읽고 감탄하게 만들었던 『이상한 정상가족』에 나오는 다음의 제안을 교육에서 자주 인용한다. 특히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슨한 연대, 열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사적 지원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그동안 가족이 떠맡아 온 돌봄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사회가 공공 서비스로 책임져 준다. 아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존중받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받는다. 가족 내에서도 아이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정서적, 수평적 유대를 유지한다.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되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폭력은 없다. 각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여러 개의 공동체, 상부상조의 네트워크에서 서로의 삶에 대한 억지와 규제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자율적 개인이 열린 공동체 안에서 너무 몸을 조이지 않는 느슨한 연대를 맺고 살아가는 것, 서로에게 틈을 열어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게 불가능한 꿈일까?”¹⁹⁾

18)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8), 「밀레니얼세대 행복 가치관 탐구 보고서」.

19) 김희경(2017),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264쪽

② 몸, 질병

2020 도쿄 패럴림픽을 앞두고 한 어린이집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곳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부러웠다. 그런 교육철학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믿음의 간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다.

“...‘보다 극적으로’, ‘보다 감동적으로’, ‘보다 영웅스럽게’로 장애인 스포츠를 보도하는 게 문제다. ‘감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만든다. ... ‘장애’가 아닌 ‘스포츠’에 집중해 달라. 장애의 반대말은 정상이 아니라 비장애이며 장애인 선수들도 스포츠를 즐기고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스포츠 본연의 스틸과 감동을 느낀다. 장애인 선수는 더 이상 장애를 극복한 특별한 선수가 아니다. 스포츠를 통해 성취감을 얻는 한 명의 스포츠 선수다.”²⁰⁾

도쿄올림픽 폐막식을 중계한 아나운서가 “제32회 도쿄 비장애인올림픽, 한국방송 KBS의 모든 중계방송을 여기서 마칩니다.”라는 발언도 화제가 되었다.²¹⁾ 올림픽을 ‘비장애인올림픽’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이어지는 패럴림픽의 존재를 환기하면서 동시에 장애인의 반대말이 ‘정상’, ‘보편’이 아님을 드러낸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쌍한 연민이거나 부존재이다. 나 또한 어렸을 때 『오체 불만족』 같은 책을 읽으면서 장애 ‘극복’ 서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구’의 아동이 다수였던 한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는 시혜를 베풀면서 상대적인 우위에 젖어 있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야 조금씩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대학 근처에 지적장애인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익숙해졌다. 시혜적인 관점을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은 ‘장애학’이라는 분야와 관련된 책을 조금씩 읽으면서부터이다.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들은 그게 내가 될지도 모른다고는

20) 황규인, 「장애인올림픽, 왜 패럴림픽?... 올림픽과 ‘어깨 나란히’ 뜻」, 『동아일보』, 2021년 8월 21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20/108644621/1>.

21) 김나나, 「[질문하는 기자들Q] ‘함께’ 가자는 패럴림픽, 언론도 함께했을까?...장애인은 불편」, 『kbs뉴스』, 2021년 9월 4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2260&ref=A>.

생각하지 않으며, 그것은 종종 ‘불행’으로 귀결된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비장애인이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하나의 범주로 묶여 사고되지 않았다. 그냥 어느 곳이나 팔다리가 불편한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발달이 늦은 사람 등이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했을 뿐이다.²²⁾

#장면 1: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

모듬별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한다. G는 자신이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힌다. 이때 모듬 진행자가 “안되셨네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라는 말을 건넨다. G는 토론 주제상 자신의 장애와 관련이 있어서 언급했던 것이었는데, 저렇게 불쌍하다는 식의 태도를 또 보고 있으려니 토론장에서 나가고 싶어진다.

#장면 2: “왜 이렇게 느리니?”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모듬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진행자는 미리 인쇄한 삽화를 준비해 가서 개인별로 말풍선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참여 유도를 한다. 돌아다니면서 지켜보는데 유독 한 학생만이 진전을 못 시키고 있어 이렇게 부추긴다. “왜 이렇게 너만 느리니? 빨리빨리 해야 발표까지 할 수 있지.”

이러한 진행자의 발언은 ‘표준화된 몸’을 상정한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느린 것 또한 ‘비정상’으로 취급된다. “JM을 해보라”²³⁾고 요청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 ‘언어의 정치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렇지 않게 쓰는 표현뿐만 아니라 욕도 특정 소수자를 지칭하여 새롭게 등장한다.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으면 “너 귀머거리야?”와

22) 김도현(2019),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 봄, 50쪽.

23) 대학생들이 특정한 형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FM’의 ‘F’를 ‘장애’의 ‘자’발음을 의미하는 ‘J’로 바꾼 것인데, ‘JM’을 하는 대학생들은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거나 자기 의지대로 통제하기 어려워 팔이 아무 데로 나 움직이는 모습을 흉내 내며 자기소개를 한다(김원영, 2018,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계절, 27쪽 참조).

같은 식의 ‘비하’ 발언은 상대방이 무언가 결여되어 있음으로 ‘비정상성’을 부여한다. 흔하게 쓰이는 욕설 ‘병신’은 괴롭히고자 하는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다.²⁴⁾ 국가기관이 나서서 특정인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산림청에서는 소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만드는 ‘소나무 재선충’의 심각성을 알린다며 소나무의 상태를 에이즈 환자에 빗대어 ‘소나무 에이즈’라고 홍보했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는 폭력 그 자체이다.²⁵⁾

우리는 어떤 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을 ‘훼손된 남성(mutilated males)’이라고 표현했고, 여성과 장애인 모두 의학적으로 비정상적인 환자로 여겨 온 역사가 있다. 어떤 몸은 전시될 수 있고, 거부되는 몸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모두 대중의 선택이었다. ‘비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뚱뚱하거나 키가 작으면, ‘장애’라고 느낀다.²⁶⁾ 누가 장애인으로 인식될 것인지의 문제는 한 사회가 몸을 다루는 태도, 기대하는 바와 연결되는데, “사회가 어떤 외모나 신체 기능을 낙인찍는지 또는 ‘정상’이라 간주하는지, 누군가에게 어떤 활동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지, 성별이나 나이, 인종, 신분, 계급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지 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더불어 건강을 의무로 만드는 사회 속에서 아픈 사람의 삶을 헤아려 봐야 한다. 아픈 사람들은 ‘질병과’ 싸운다기보다, 질병을 겪으며 살아가기 위해 싸운다. “네 몸만 생각해!” 그러나 ‘내 몸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젠더와 계급을, 빈곤을, 인종 차별을, 의료와 돌봄을, 자본주의를 생각해야만 한다.²⁸⁾ 코로나19로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의 집단감염·사망이 일어났을 때를 돌아보자. 코로나19의 첫 사망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63세 남성으로 20년간이나 청도대남병원에 거주했다고 한다. 한국 시설의료 시스템은 20세기 초, 우생학에 기반한 정신질환과 중증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24) 하승우 외(2013),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교육공동체넷.

25) 김민아(2016), 『아픈 몸, 더 아픈 차별』, 뜨인돌, 137쪽.

26) Garland-Thomson, R. (2002). Integrating disability, transforming feminist theory. *NWSA journal*, pp. 1-32.

27) 수전 웬델 (2013),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그린비, 77쪽.

28) 전희경 추천의 글, 앤보이어(2021), 『언다잉』, 양미래 옮김, 플레이타임, 315쪽.

부터 철저히 분리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²⁹⁾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는 ‘탈시설운동’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미 노르웨이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탈시설운동이 시작되어 현재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고 있다. 장애인의 독립성, 자율성, 더불어 돌봄, 상호성의 관계까지 생각해 보게 만든다. 다큐 「어른이 되면」의 장혜영 감독(현 국회의원)의 동생은 중증 발달장애가 있었는데, 열두 살 때 수용시설에 들어가 18년간 떨어져 살다가 한집에 살기 시작한다. 장혜영은 그 과정 속에서 크게 깨달은 점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간 내가 동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구나” 하는 점ियो. 전엔 저도 동생의 가장 큰 특성을 ‘장애’라고 봤던 것 같아요. 동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동생의 장애에 대해서만 얘기 했지, 정작 애가 좋아하는 게 뭔지, 성격이 어떤지 몰랐던 거죠. 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동생을 대하는 방법을 어려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³⁰⁾

다큐 「크립 캠프: 장애는 없다」에서는 미국 장애인인권운동의 시초가 된 ‘캠프 제네드’라는 여름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제네드의 지도 교사로 활동한 주디 휴만은 전통적인 캠프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캠프를 운영하는 스태프와 지도교사들을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장애인 참가자들을 스스로들이 대하는 과정 속에서 십대 장애인들은 억눌려 있었던 당연한 차별을 더는 감내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³¹⁾ 이 다큐를 보면서 우리의 교육 방식을 생각해 보게 한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은 교육 공간에서 함께 배운다는 것에 대해....

29) 제이슨 스트로더, 「[왜냐면] 코로나19 첫 사망 1년...청도대남병원이 남긴 것」, 『한겨레』, 2021년 2월 22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84017.html>.

30) 이진순, 「강한 삶을 넘어,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한겨레』, 2017년 10월 20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5373.html.

31) 오마이뉴스 “이 초라한 여름캠프가 장애인권운동의 시초라고?” 2020년 4월 9일 기사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63032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③ 이성애

타미: 대선 기간에 이직해서 정신없겠어. 미디어팀은 특히 매일 야근일 텐데.

봉기: 어. 예, 일은 괜찮은데 데이트 못 해서 좀 그렇죠.

타미: 애인한테 욕 좀 먹겠네.

봉기: 아유, 너무 올드하시다. ‘애인’이 뭐예요. 요새는 다들 ‘여친’이라 그러잖아요.

타미: 그쪽이 게이일지, 바이일지, 스트레이트일지 몰라 배려한 건데?

이 대사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 손에 꼽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1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타미가 봉기에게 마지막에 한방 먹이는(?) 대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이성애 중심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만든다(물론 이 드라마도 이성애 각본에 충실한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기 드문 ‘여성’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이성애자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성애자가 되었는지 질문하지 않지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로 커밍아웃하는 이들에게는 설명을 요구한다.

한국 사회는 연애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문화도 심각하다. 연애를 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으로 취급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성애’만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 ‘정상성’을 부여한다.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있냐는 물음을 너무 자주 그리고 가볍게 던진다.

특히 교육에서 10~20대를 만나는 교육진행자는 ‘이성친구’를 소재로 자주 사용하면서 대답을 유도하기도 한다. 사적인 문제를 굳이 왜 궁금해하는지도 의아하지만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장면 1

대학생 P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프로그램 중 한 특강의 주제가 ‘연애 잘하는 법’이다. 강사는 여자는 남자에게 이래야 하며, 남자는 여자에게 이래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성애자인 P는 왜 저런 강의를 비싼 등록금 내고 들어온 학교에서 들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장면 2

한 초등학교에서는 여남을 무조건 짝으로 정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여학생 K는 어느 날 담임 교사에게 짝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다. 평소에 남학생 Y가 K에게 치마를 들추며 ‘아이스케키’를 하는 일이 잦아지자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말한 것이다. 그런데 담임 교사는 K에게 “네가 참아. 남자애들은 다 그래. Y가 널 좋아해서 그러는 걸 거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장면 1’과 같은 상황은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생이나 대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많이 일어난다. 나 또한 고3을 대상으로 ‘연애’ 특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교묘하게(?) 성평등 강의로 바뀌어서 진행한 적이 있다. 10대 후반까지는 금기사항이었던 연애가 수능이 끝나면, 대학생이 되면 갑작스럽게 왜 권장사항이 되어 버리는 걸까.³²⁾

고등학교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과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는 미디어를 통해 학습할 수밖에 없다.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검색되는 불법촬영물 등을 접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평등한 연애 관념이 만들어질 수나 있을까? 게다가 드라마의 로맨스가 그려지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면 벽을 밀치거나 손목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강압적인 장면이 다수를 이룬다. 나 또한 어렸을 때 그런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서 연애에 대한 환상을 키웠던 것 같다(「파리의 연인」, 「미안하다 사랑한다」 같은 드라마의 대사를 지금 떠올려 보면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잘못된 방식의 연애관이 재현되고 그것을 소비하고 유통하면서 악순환에 빠져 든다.

‘장면 2’와 같이 성적 괴롭힘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교사의 가르침 속에서 Y의 행동은 어느새 정당화되어 버린다. K는 그것을 ‘로맨스’로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최근에는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그동안 얼마나 ‘사랑싸움’으로만 취급해 왔던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시간을 통제하는 등 일상을 제약하는 것 또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32) 천혜정(2005), 「여대생의 체험을 통해 본 이성교제의 의미」, 『한국가족학회』, 17권 제3호.

한국 사회는 왜 그렇게 여성과 남성이 한 공간에 있으면 ‘짜’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일까. 교육진행자도 여성과 남성이 한 책상에 나란히 같이 앉아 있으면 꼭 연인이나, 부부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를 자주 목도하게 된다. 동성끼리 앉아 있으면 전혀 연인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이성을 배제한 모든 성적 관계는 침묵할 것을 강요당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어떤 활동가는 이 주제가 다른 것보다 민감해 교육에서 잘 언급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나 또한 학교 강의 등에서 ‘성소수자’ 문제는 다루지 않아 줬으면 하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럴 때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동성애 혐오 문화가 너무 만연한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더 부각되면서 그것이 주된 흐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예전에 내가 일했던 시민단체에서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인터뷰를 회원 잡지에 실은 적이 있었는데, 한 회원이 그것을 보고 회원 탈퇴를 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왔던 적이 있다. 몇 번 만났던 회원이기도 했고, 그 당시 어떻게든 성소수자 커플의 정당성을 알리고 싶어 30분 넘게 설득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느꼈던 것은 운동의 지향성이라는 것이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특히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어려움의 깊이를 체감했다(내가 너무 쉬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 이런 이성에 정상성의 근간을 어떻게 흔들 수 있을지, 교육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활동가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인어공주」 이야기 버전이 여럿 있지만 인어공주가 ‘남자를 사랑했던’ 안데르센 자신이었다는 해석은 잘 모른다. 이성에 사회의 기준으로선 완전한 여성도, 완전한 남성도 아닌 안데르센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이며 물고기인 인어공주에 빗대었다. 인어공주의 ‘목소리’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잃는 순간 인어공주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마지막에 인어공주는 왕자를 죽이지 않고 자살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풍성한 자아의 영원성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얼마 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로 등극하게 된 「마인」이라는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속 첫 여성 동성애라는 설정 등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었는데 이런 대사가 나온다. “세상의 편견에 맞설 용기가 생겼어.” 사랑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는 데 ‘용기’까지 필요한 사회에서 우리의 페다고지는 어떻게 세상과 맞서야 할까.

33) 이라영(2020), 『폭력의 진부함』, 갈무리, 185~189쪽.

2) 정체성: 왜 ‘차이’를 ‘차별’하는가?

우리는 한 개인을 ‘개인’보다는 ‘집단’화해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다. 한 사람을 소개로 만났다고 치자.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다. 성별, 나이, 국적, 인종 등에 따라 구별짓기가 시작된다. 심지어 혈액형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다고 특징짓는 경우도 목도하게 된다. 정체성이라는 범주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내용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한다.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혹 그것은 스스로 ‘선택’하기 어렵기도 하고, 주어졌지만 차별을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

정체성 이야기를 할 때 ‘원손잡이’를 꼭 언급하게 되는데, 차이가 어떻게 억압적으로 표상되는지 알게 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시대문화권을 불문하고 원손잡이는 약 10%의 비율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약 4%대에 불과하다. 한국은 왜 다른 곳과 달리 그 비율이 낮을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원손잡이들은 억압의 역사를 갖고 있다. 부정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오른손잡이용이다 보니 노력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야만 했다. 그러나 차츰 그런 인식도 사라지고 원손잡이용 상품이 개발되는 변화의 흐름이 존재한다. 한국 사회만 여전히 그 간극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을 한번 해 봐도 좋을 것 같다.

① 젠더³⁴⁾

‘인간’이란 무엇이며 ‘살 만한 삶’이란 누구에게는 가능하지만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은지 짚어보고 싶다. 정의란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됨’이 배치되려면 어떤 사회 규범이 칭송되고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결정과도 관련”³⁵⁾된다고 했을 때 현재 한국 사회의 ‘규범’을 되묻게 한다. 특히 ‘누군가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끊임 없이 성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살아간다.

우리 사회의 이분법 중 가장 공고한 것은 무엇보다 ‘성별 이분법’이 아닌가 싶다.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것에 별로 의심하지 않는다. 그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생물학적으로 주된 기준을 생식선, 염색체, 호르몬으로 범주화하는데, 어떤 사람이든 이들이 두 섹스 범주 중 정확히 하나에 깔끔하게 들어맞는다고 여기는³⁶⁾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또한 외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성별을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교육 참가자로 현장에 갔을 때 강사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자. 제일 먼저 성별을 따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여성 또는 남성이라고 판단하는가? 옷차림? 머리스타일? 목소리? 행동? 요즘 같이 온라인으로 강의나 미팅을 자주 하는 상황에서 상반신 위주의 화면 속에서조차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가? 긴 머리인지 숏컷인지, 치마를 입는지 바지를 입는지 등은 시대에 따라 특정 문화권마다 다른 양상을 띠고 변화되어 왔지만, 어느새 ‘여성성’, ‘남성성’의 젠더 스테레오타입이 무의식적으로 체화되어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한편 ‘남자란 무엇인가’ 라고는 잘 묻지 않는다. 그 대신에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묻게 만드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다. 남자는 ‘보편적인 인간’으로 자신을 상정하고 성별로 자신의 위치를 출발시키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을 규정하려면, 우선 ‘나는 여자다’라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는 결코 어떤 성에 속하는 개인으로서

34) ‘젠더’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섹스와는 구별되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정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하고 부여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35) 주디스 버틀러(2015), 『젠더 허물기』, 조현준 옮김, 문학과지성사, 98쪽.

36) 미미 마리누치(2018), 『페미니즘을 퀴어링』, 권유경·김은주 옮김, 봄알람, 81쪽.

자신을 규정하며 시작하지는 않는다.”³⁷⁾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여성’이란 어떤 실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부터 만들어진 ‘여자다움’이 사회적인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명제가 성립된다.

임신한 친구에게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물어보고 어떤 선물을 살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도 젠더를 생산한다. 여성이라는 범주를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젠더 이분법은 강화된다. 여남 불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권력을 만드는 데 동조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성의 사례를 들 때 목소리 톤을 높이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입을 막으며 “호호호” 웃는 전형적인 여성성을 흉내 낸다거나 “여자의 적은 여자이다”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같은 여성을 모독하기도 한다.

한편 또 누군가는 ‘여성’, ‘남성’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하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젠더 규범의 의례적 반복을 비틀어 다르게 반복하는 실천자들, 바로 ‘퀴어’이다.³⁸⁾ 그러나 우리 옆에 성소수자가 많지만 그들은 ‘정상’이라는 사회에서 ‘평범’을 행세하기도 한다. 패싱(passing) 즉, 일자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안전하기 위해 지나치는 것이다.³⁹⁾ 흔히 성적정체성을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기도 하지만 물어보지도 않는다. 역으로 패싱을 당하고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비가시화’되어 버린다.

통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적 모호성(Sexual Ambiguity)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매년 수천 명에 이른다.⁴⁰⁾ 소위 ‘인터섹스’로 불리는데 태어날 때부터 성선(난소·정소), 성염색체, 성호르몬, 성기 변형 중 전부를 지니고 태어나는 등 다양한 신체 조건이 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강제적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정상’으로 보인다’

37) 시몬 드 보부아르(2017), 『제2의 성1』, 이희영 옮김, 동서문화사, 17쪽.

38) 전혜은(2021), 『퀴어이론 산책하기』, 여이연, 207쪽.

39) 희정(2019),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 오월의 봄, 32쪽.

40)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섹스 연구 초기 논문인 Fausto-Sterling, A. (2000). The five sexes, revisited.

The sciences, 17-23.를 참고. 파우스토-스털링에 따르면 섹스는 무한히 늘릴 수 있는 연속체이며, 여·남 이분법은 신화임을 알게 한다.

는 명목하에 의사들은 수술을 합리화하여 권유하고, 아동들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조차 빼앗긴다.

‘조앤-존의 사례’로 불렸던 데이비드-브렌다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싶다. 이 사례⁴¹⁾는 규범이 인간을 제한하는 여러 방식에 대한 어떤 관점을 제시한다. XY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난 데이비드는 생후 8개월 때 포경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미숙한 기계 사용으로 음경이 절단되었다. 그의 부모는 존 머니 박사의 주장, 아이가 태어날 때 주어진 것과 다른 젠더가 되는 수술을 받고 사회화를 시작한다면, 아이는 새로운 젠더에 적응하여 정상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존 머니는 데이비드를 여자로 키울 것을 권유했고, 브렌다라는 새 이름을 받고 질을 만들기 위한 예비 수술도 했다. 그러나 브렌다는 점점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에스트로겐 주사 등을 거부했다. 머니와 논쟁을 해 온 인물, 성 연구학자 밀턴 다이아몬드는 브렌다에게 방향 전환을 제시했고 14세의 나이에 다시 데이비드는 남성으로 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비드는 ‘정상화’를 주장했던 머니와 ‘자연’이라는 다이아몬드의 논쟁 속에서 이용되었다.

이 사례는 인터섹스 아동에게 행해지는 수술의 잔혹성, 강제성, 지속적 해악에 대해 대중적 관심을 이끌었고, 미국 사회에서 인터섹스 운동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왜 사회가 젠더 이형성이라는 이상을 유지하려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 준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인터섹스 단체⁴²⁾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무지한 경우가 너무 많다.

최근 한 달 사이에 3명의 트랜스젠더를 떠나보내게 만든 한국 사회를 마주하면서 ‘진짜 몸’이란 것은 무엇이며, 섹스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의되는지, 이것은 또 누가 정하는 권력의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변희수의 말을 떠올려 본다. 육군본부는 국

41) 이 사례는 주디스 버틀러(2015), 위의 책, 3장에 나온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과 함께 발생하는 규범의 장, 사회성이나 관계성의 문제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면 한계상 축약하다 보니 설명이 너무 남작해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직접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42) 한국에서는 2017년에 인터섹스 당사자모임 ‘나선’이 만들어졌다. https://twitter.com/intersex_kr

군수도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행했던 적법한 수술을 ‘고의적인 신체 훼손’으로 몰아가고 수술의 결과를 ‘장애’라 이름 지어 강제 전역시키게 했다.⁴³⁾ 자신의 정체성, 존재를 찾고자 노력한 사람에게 한국 사회는 그의 삶을 빼앗아갔다.

페미니스트 수전 팔루디의 『다크룸』이라는 책을 잠시 언급하고 싶다. 저자는 76세에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은 이후 갑자기 재회하게 된 트랜스젠더 ‘아버지’와의 감정, 삶 등을 솔직하게 담아낸다. 수전은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 과거의 정체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 역사와 계속해서 재협상하면서 과거로부터 어떻게 깨어 나오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처음에는 수전 또한 스스로 보수적이라는 것에, 본질주의자가 된 것 같은 느낌에 놀란다. 두 개의 젠더를 대하는 인사말이 입안에서 맴돌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를 떠나보낼 준비가 됐는지 알 수 없어 한다. 무엇보다 스커트를 입고 진주귀걸이를 하는 등 ‘여성성’을 수행하고 있는 아버지의 행동에서 반감을 가지기도 한다. ‘비정상성’을 의학 기술을 빌려 증명해야 했던 트랜스젠더들은 ‘정상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여성성과 남성성이 구성되는 만큼이나 트랜스젠더의 젠더 역시 구성되고 있다. 그래서 질문의 장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의 젠더 수행이 아닌, 이 사회가 정상성의 경계를 긋고, 그 경계를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수전은 개인의 역사, 모든 개인이 저마다 경험하는 특별한 투쟁, 실망, 삶에 대한 열망, 이 모든 것을 ‘정체성’이라고 이름 붙인 하나의 유리병에 깔끔하게 들어갈 수 없다고 본다. 정체성은 단순히 정의를 내릴 수 없고, 복잡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의 마지막 이 문구는 울림을 준다. “이 우주에는 단 하나의 구분, 단 하나의 진정한 이분법이 있구나. 삶과 죽음.”

43) 김형남, 「변희수는 왜 그렇게도 군을 믿었나」, 『오마이뉴스』, 2021년 3월 17일,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27388&fbclid=IwAR3D_aECgCKZggTzT-GuzgsVDqDeQhB2efp-UORyT13eoDYKAzJIB2w9qhFA#cb.

44) 손희정 해제, 수전 팔루디(2020), 『다크룸』, 손희정 옮김, 아르테, 633쪽.

② 국적

올림픽 같은 스포츠 대회를 잠시 살펴보자. ‘국가주의’의 적나라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은 나라마다 순위를 매겨서 줄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계인이 하나’가 된다고 표현하는지 아이러니하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은 나라를 대표하여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메달의 취득 여부에 따라 스포츠 종목 인기 여부가 달라진다. 이번에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한국의 미디어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렇다.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는 구소련 시절 체르노빌 원전 참사 사진을, 아이티 선수단이 입장할 때는 현지 폭동 사진을 사용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까지도 자막에 달았다.⁴⁵⁾ 다른 국가에 대한 무지한 정보, 조롱하는 분위기 등은 사실 특정 방송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 화면에 어떤 이미지를 넣을 것인가, 중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자막을 쓸 것인가는 평소의 인식에서부터 드러나는 일이다. 우리도 교육에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고 어떤 글귀를 쓰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올림픽에서 국가대표가 아닌 난민 대표팀이라는 것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2016년 리우올림픽에 처음으로 ‘난민대표팀’(ROT: Refugee Olympic Team)이 꾸려졌는데, 이들은 국기 대신 오륜기를 사용하고, 메달을 수상하면 국가 대신 올림픽 찬가가 연주된다.⁴⁶⁾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들은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올림픽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 나가고 있다. IOC 자체 기금에서 난민대표팀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팀이 생겨났다는 것은 전쟁, 정치적·종교적 탄압, 여성 차별, 기후 위기 등으로 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그곳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계속 있어 왔다. ‘상상의 공동체’에 포함할 수 없도록 기준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배제되어 온 역사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45) 노지민, 「“올림픽 중계 MBC 반복되는 잘못, 실수 아니다”」, 『미디어오늘』, 2021년 7월 27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38>

46) 우수경, 「“우리가 바로 올림픽 정신”...난민에 희망을 ‘난민대표팀’」, 『kbs뉴스』, 2021년 7월 24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1167>

드라마 「킹덤: 아신전」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신’이라는 존재는 성저야인, 즉 함경도 변방에서 살던 조선에 귀화한 여진족으로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여진을 경계하고 정벌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 조선 조정은 다른 여진족의 동태를 살펴주던 성저야인들에게 성씨나 관직을 하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은 결코 그들을 같은 조선인으로 대우해 주지 않았고, 가장 천한 존재로 여겼다. 그들은 살기 위해 귀화했지만 조선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혀 양쪽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⁴⁷⁾ 한국의 역사 속에서 ‘경계인’으로서 차별 받아온 사람이 많다는 것, 나아가 현재 지구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짚어 보자.

특히 청소년 교육에서 나는 이 사례를 자주 언급한다. 2003년 이란에서 출생한 K는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들어와 천주교로 개종하면서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렵게 되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의 친구들이 공정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결국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K의 중학교 학생회에서 쓴 입장문은 매우 화제가 되었다. 소리 내어 읽다 보면 몇 번이나 울컥하게 만든다.

“...다행히 운 좋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도 없고, 정치적·종교적 자유도 억압되지 않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난민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이니 우리 집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친구가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란 친구뿐 아니라 그를 돕는 우리 학생들 모두 같은 이유로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많은 사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⁴⁸⁾

47) 이승한, 「「킹덤:아신전」, 무결하고 싶은 국가와 민족의 맨얼굴」, 『씨네플레이』, 2021년 8월 10일, https://blog.naver.com/cine_play/222464428799

48) 입장문의 일부이며 전문은 다음의 기사에서 볼 수 있다. 황금비, 「우리 친구, 난민 인정받기까지...」 중학교 학생회 입장문 화제, 『한겨레』, 2018년 10월 20일,

강의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국가주의’, ‘민족주의’, ‘자문화중심주의’ 발언에 빠지는 경우를 자주 듣게 된다.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 같은 국가는 미개하니까” 등 국가 간 우열을 나누어 편견을 내뿜는다. 유럽, 미국 등 서구권 국가는 추켜세우고, 제3세계 국가는 언급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다. 등장한다면 그것은 ‘가난’ 또는 ‘신기’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서 머물러 있다. 아프리카는 대륙 이름이지만 나라 이름처럼 부르고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

특히 중국과 일본이 언급될 경우에는 그것이 극대화된다. 한번은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다양성’을 주제로 수업을 갔을 때 일본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도입부를 열었다. 바로 그때 한 학생이 “어떻게 일본인이랑 친구가 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닌가. 그 당시 사람들이 유니클로 등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한창 벌이고 있었던 시기인 탓도 있었지만, 그 질문의 뉘앙스는 ‘혐의’조였다. 쉬는 시간에 그 교실을 둘러보니 게시판 공간에 반 학생들이 각자 그린 ‘독도는 우리 땅’ 포스터가 가득 붙어 있었다. 이를 통해 독자들도 그 반의 평소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추측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하나의 유령, 즉 외국인 혐오주의(xenophobia)라는 유령이 지구 상에 떠다니고 있다”⁴⁹⁾라고 말할 것처럼 이 유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경이 사라진 세계화 시대에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는 매우 자연스러워졌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은 더욱 두꺼워지고 있다. 지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불안이 더 엄습할수록 누군가를 향해 공격하는 경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누군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리고, 누군가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인종’이라는 범주 또한 ‘국적’과 교차하여 차별의 기제가 된다.

49) 지그문트 바우만(2013), 『리퀴드 러브: 사랑하지 않을 권리』, 권태우·조형준 옮김, 새물결, 267쪽.

③ 인종

한국 사회에서 인종주의는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직도 ‘한민족’이라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인종주의란 타자의 ‘행위’가 아니라 ‘속성’에 근거해 타자를 분류하고, 측정하고, 가치 매기고, 증오하고, 심지어 말살하는 근대 서양의 이데올로기이다. 인종주의는 인종적 타자의 몸을 먹고 자란다. 타인의 몸을 보는 주체의 시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⁵⁰⁾ 흔히 피부가 ‘뽀양다’라는 것은 칭찬으로, ‘까맣다’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취급한다. 지금은 그나마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예전의 개그 프로그램을 떠올려 보면 얼굴을 까맣게 분장한다든가, 원주민의 모습을 유머코드로 사용했다.

한국 사회에서 인종주의는 자본주의, 식민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피부색의 문제는 (모두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출신 국가의 경제 수준과 연결되어 있고, 식민 지배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연결되는 전 세계적 자본주의의 착취 구조와 결합되어 있다.⁵¹⁾ ‘경제인종주의’, ‘GDP인종주의’⁵²⁾같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을 차별할 때 보면 이 용어가 자본주의와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같은 동포라고 할 수 있는 재미동포, 재일동포, 재중동포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이들의 이미지가 달리 보인다. 즉, 거주 국가의 경제상황이 필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편견과 마주했던 에피소드를 하나 언급하면, 한번은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 중년 여성들의 구술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연락을 드렸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에 나타나는 한 여성이 그 ‘조선족 여성’인가 의심했다. 왜냐하면 빨간 재킷, 브로치, 진주목걸이, 금팔찌 등 매우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조선족 사람들은 칙칙한 색깔의 옷만 입어야 하며, 목걸이 등 화려한 장신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한국에서 사는 조선족 여성은 당연히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인터뷰는 일을 하지 않고

50) 염운옥(2019), 『낙인찍힌 몸』, 돌베개, 6~7쪽.

51) 박진빈(2019), 「인종주의의 역사와 오늘의 한국」, 『역사비평』, 293-317

52) 박노자, 「우리 이데올로기, 경제 인종주의」, 『한겨레』, 2004년 11월 25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6064.html>

노후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편협한 생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예전에 한 이주민이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떠오른다. “말로는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눈빛 속에서 이미 나타나요.”

이주민을 지속적으로 ‘타자화’하는 모습 속에서 한국의 인종주의는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약 230만 명의 국내 이주민은 사각지대에 있었고, 정보 접근성, 공적마스크 구매,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배제⁵³⁾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던 초기에는 중국 혐오가 국내에서도 강했는데 ‘우한 폐렴’이라 부르며 ‘타’하기 시작했다. 이런 인종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연결된다. 유럽, 호주 등에서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들 또한 모욕과 폭력을 당했다는 경험담이 SNS에서 퍼져 나갔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BLM(Black Lives Matter)운동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잠시 살펴보자. BLM운동을 지지하는 시각의 한편에서는 동양인 차별이 더 심하다는 주장과 이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왜 우리의 세금으로 주느냐는 불멘소리를 내뿜었다. 이주민을 향해 혐오를 쏟아내는 사람이 외국인의 동양인 차별은 반대하고 있는 현상은 아이러니하다. 혐오는 혐오를 낳는 문화가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공격의 대상을 나와는 다른 ‘타자’로 설정하고, 나와 다름을 계속 구분하려고 한다.

여기서 이주여성 이야기를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종’문제와도 착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국 도시와 농촌 지역에 ‘국제결혼 하실 분, 초혼, 재혼, 장애인 환영’ 등 거리 광고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요즘은 길거리 현수막이 줄어들었지만 중개업자들은 이주여성을 ‘구매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행정이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국제결혼을 추진한 바 있고, 심지어 2006년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총각 혼인사업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국제결혼을 하면 1인당 수백만 원을 주는 등의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⁵⁴⁾

‘국제결혼’은 1992년 한·중 수교의 영향으로 초기에는 조선족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혈연적(종족적) 배경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잘 적

53) 공적마스크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구매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 외국인 전체의 절반 정도인 125만명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안산시와 부천시 등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한 예외 사례이며, 서울시도 작년에 서울에 사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54) 황정미 외(2009),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16쪽.

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선호했다고 한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는 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다른 지역의 여성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이들은 한국말을 몰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인종’이 다르지만 그 이유 때문에 (‘조선족과 달리)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장점이 부각되었다.⁵⁵⁾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 중 베트남 출신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아시아 여성보다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하얗기 때문에 한국인 남성이 결혼 상대자로 ‘선호’한다. 이것은 일종의 피부를 통한 ‘인종’적 호불호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젠더’ 관점에서 직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안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 여성을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성격의 고정관념을 주면서, 파트너가 아시아계 여성에게 저지르는 폭력을 방관하거나 숨기는 데 사용된다. 아시아계 여성 41~61%가 한번 이상 파트너에게 육체적·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미국 내 여성 평균의 두 배이며, 아시아계 여성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도 무척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⁵⁶⁾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 응답자 10명 중 4명(42.1%)이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언어적 학대(81.1%)나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 생활비 미지급 등이 주된 방식이었다.⁵⁷⁾ 그 밖에도 외출에 제약을 받거나 신분증을 빼앗기는 사례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이주여성의 살해 사건을 보면 이것은 마치 이주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으로 보인다. 이주여성은 문화적으로 점진적인 포섭이 이루어지지만 여성의 타자성이 더욱 공고화되는 것은 한국인의 가부장적 사회의식이 이들을 섹슈얼리티의 관점으로만 부각해 접근하기 때문이다.⁵⁸⁾

독자가 속한 여러 정체성 중 특권적 정체성과 그렇지 않은 정체성의 목록을 각각 만들어 보자. 이처럼 서로 모순된 정체성은 이것 또는 저것의 선택처럼 생각되는가? 아니면 이

55) 윤형숙(2003),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 심포지움 발표논문(미간행).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59-84.

56) 이제오마 울루오(2019), 『인종토크』, 노지양 옮김, 책과함께, 254쪽.

57)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58) 김현미(2018), 「난민포비아와 한국의 정치적 정동의 시간성」, 『황해문화』 101, 210~228쪽.

것과 저것 둘 다의 선택처럼 생각되는가? 이처럼 다양한 정체성은 독자의 삶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⁵⁹⁾

3) 감수성: 어떻게 젠더 감수성을 키워 나갈까?

요즘 교육에서 평화 감수성, 인권 감수성, 젠더 감수성 등 감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수성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한두 번의 단발성 배움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젠더 감수성을 제안하려고 한다. 흔히 ‘젠더 감수성’이란 젠더 간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가 왜 발생하게 되는지, 성차별과 젠더 불평등을 인지하게 되는 능력을 말한다. 젠더 감수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는 자신의 성차별주의 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위치에 따라 ‘특권’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 외모, 입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교육 내용을 되돌아보자. 부끄럽지만, 성찰하며 배웠던 지난 날 나의 사례를 많이 인용해 보았다.

59) 로빈라일(2020), 『젠더란 무엇인가』, 조애리 외 옮김, 한울.

① 언어

이 글을 쓰기 위해 한컴오피스를 사용하는데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치면 ‘초등학교’로 자동으로 바뀐다. 어떤 단어가 사라지기도 하고, 신조어가 나타나 새로 익혀야 하기도 한다.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 문화, 담론, 규범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 움직인다. 언어의 변화를 통해 역사를 알게 하고, 세계관이 형성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한다.

먼저 자주 사용하는 호칭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고 싶다. 한국 사회만큼 호칭이 복잡한 곳도 없는데, 이에 따라 위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진행자(또는 사회자)가 참가자들에게, 참가자가 진행자에게, 참가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서로 평등한 위치를 만드는 데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나를 ‘있게’ 만든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맨 뒤에 앉은 사람”, “빨간색 티셔츠 입은 사람” 이런 식으로 부를 때 그 교실에서 자신은 있으나마나한 존재 같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참가자로서 어느 교육 또는 행사에 갔을 때 입구 접수처에 내 이름이 적힌 명찰을 받을 때 부터 일원이 되는 감정이 든다(자신의 이름이 없거나 이름을 다르게 인쇄해 놓은 명찰을 보고 서운해하는 참가자도 종종 보았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자주 보지 않으면 참가자들의 이름을 다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호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가능하다면 주최 측에 요청해서 미리 참가자들의 명단을 받거나 이름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나는 이름표 스티커를 가지고 가서 각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옷에 붙여 달라고 한다). 참가자 간 잘 모를 경우에 호칭의 불평등이 나타나기 쉽다. 특히 연령대가 다양하게 섞여 있을 때 두드러진다. 물론 한국 사회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중립적(?)으로 흔하게 사용하면서 서로 존중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그렇게 부르는 것은 꺼린다. 자기소개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이를 밝혀 구성원 간 나이로 서열을 매기

거나 외적으로 나이를 가늠하여 호칭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 씨”와 “선생님” 등이 분리되고, 누구는 반말을, 누구는 존칭을 사용한다(교육을 진행하면서 참가자 간 별명[닉네임]을 사용하면 더 평등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자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또 불편해하는 참가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 달리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작 전에 미리 호칭에 대한 약속을 서로 정하는 것이 좋다.

교육진행자가 자주 간과하는 경우는 청소년들과 만날 때이다. 교육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존칭과 반말을 섞어서 말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친구”라는 호칭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남학생에게는 ‘○○ 군’, 여학생에게는 ‘○○ 양’으로 성별 이분법적이고 나이를 드러내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친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하대하는 나이주의의 언어문화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⁶⁰⁾

또 중요한 것은 단어 사용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워낙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한 혐오 표현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혐오의 대상이 주로 누구를 향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혐오 표현이 아니라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서도 특정 소수자에게 상처 주는 단어가 만연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평소에 성별, 나이, 장애, 인종, 학력, 직업, 지역 등에 따른 고정관념은 차별적인 단어를 생성하고, 그 말은 칼이 된다.

예를 들면 특히 장애와 관련된 단어, ‘눈먼 돈’, ‘깜깜이 선거’, ‘꿀 먹은 병어리’ 같은 관용구가 습관적으로 고착되어 있다. 결정을 잘 못 하는 사람에게 “너 결정장애냐?”라든지, 놀람과 감탄을 표현할 때도 “미쳤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자. 장애인단체의 노력 끝에 요즘에는 병어리장갑 대신 ‘손모아장갑’, 질름발이는 ‘불균형적인’, 눈뜬장님은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사용하고 있는 방송 자막 등이 눈에 띄게 많아지긴 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그렇다.

젠더에 따라서도 언어가 매우 달라진다. 예전에 일본어를 배울 때 가장 의문이 들

60)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홈페이지(<https://yhrjieum.kr/ageismcampaign>) 참고.

었던 것 중 하나가 여성형, 남성형 표현이 별도로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일본어 연습을 하다가 실전에서 일본 친구와 대화할 때 ‘남성 표현’을 썼다가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다. 문장 끝에 어떤 표현은 여성이 주로 쓰며, 어학공부 내레이션에 나오는 여성 목소리의 톤은 매우 높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 관습까지 함께 체득하게 되는 것인데, 젠더 차별적인 언어는 바뀌어 나가야 한다. 일본에서는 남편을 ‘주인(主人)’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한국은 아내를 ‘집사람’으로 표현해 왔는데, 이러한 단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나라의 젠더 차별적인 역사를 알게 한다.

법령·행정 용어, 서식 등에 쓰이는 단어나 속담, 관용어 등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 중에 성차별적 단어가 무척 많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지자체 및 기관 등에서도 단어를 바꾸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유모차를 ‘유아차’로, 저출산 대신 ‘저출생’, 미혼은 ‘비혼’, 학부형 대신 ‘학부모’, 미망인을 대신하여 ‘고(故) ○○○씨의 부인’ 등 시민들이 직접 개선안⁶¹⁾을 제안해 왔다. 교육 현장에서도 개선된 내용을 토대로 교육안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젠더 이분법적인 ‘he, she’라는 단수대명사를 사용해 왔던 영어권, 유럽권 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젠더를 허물기 위한 시도로 ‘they’를 단수대명사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they는 원래 ‘그들’이나 ‘그것들’로 번역되는 복수형 표현으로 특정인의 성별을 모르거나 성별을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을 때,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을 지칭하며 써 왔는데 미국의 사전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性)을 가진 개인을 지칭하는 단수 대명사라는 의미를 추가했다.⁶²⁾

이처럼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그에 맞춰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들 또한 자신들의 평소 언어습관을 바꿔야 한다. 교육진행자가 말을 하다 보면 평소 체화된 언어습관이 바로 튀어나오면서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광

61) 특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성평등언어사전을 2018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62) 조미담, 「제3의 성 지칭하는 영어 3인칭 단수 대명사는 ‘they’」, 『경향신문』, 2019년 9월 18일,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909181656001#csidx75a27e-9766ce19c872441e349420f83>.

주사태'에서 '광주민중화운동'으로 '유관순 누나'에서 '유관순 열사'로 명칭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상기해 봤을 때 활동가들은 더욱 예민하고 버리어 나가야 한다.

한편 교육진행자가 가장 많이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이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의 대응이다.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은 또래 문화이자 재미있는 놀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문제 제기가 더욱 어렵다. 그런 말을 해도 주변의 학생들은 그저 재미있는 일로 치부하고 받아들이며 웃고 넘겨버린다. 심지어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기 위해서는 혐오 표현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어 정당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⁶³⁾ 청소년이 사용하는 혐오 표현 중에 갈수록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보'자가 들어간 단어를 쓴다거나 '느금마', '너희 엄마 순두부 찌개장인' 등 친구 어머니를 욕하는 '패드립'을 남발한다. 학교생활기록부나 친구가 들고 다니는 체크카드에서 어머니 이름을 알아내어 그것을 욕으로 내뱉기도 한다.⁶⁴⁾ 왜 그 단어를 욕으로 사용하는지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미디어 등에서 보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여혐 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모방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교육 진행에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참가자가 있다면 바로 지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희롱, 성추행 발언과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혐오 표현을 대항 표현으로 바꾸고, 언어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⁶⁵⁾

“언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혹시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충분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 감수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언어 감수성을 높이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⁶⁶⁾

63) 이해정 외(2019),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 살림터, 92쪽.

64) 편광현 외, 『[밀실] “너희 엄마 김치찌개 장인”... 여혐 표현 넘쳐나는 교실』, 『중앙일보』, 2019년 11월 15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33235>

65) 이해정 외(2019), 위의 책, 152쪽.

66) 신지영(2021), 『언어의 높이뛰기』, 인플루엔셜(주), 68쪽.

② 외모

동화『백설공주』에 등장하는 왕비는 거울을 보면서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지 묻는다. 왜 하필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까? 그리고 거울이 아름답다고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⁶⁷⁾ 이런 아름다움의 욕망이라는 것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외모’ 강박증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된다. 마스크가 일상이 되다 보니 굳이 화장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것은 특정 성별,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던 불편함이기도 했다. “왜 화장을 안 하고 다니세요?”라는 질문을 나 또한 무수히 많이 들어봤으며, 회사에 화장을 안 하고 오면 ‘예의’가 없다는 소리까지 들어봤다는 친구의 고충 속에서 누가 이렇게 꾸밈을 강요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꾸밈은 자연스럽기도 하고 재밌어야 하지만 강요당하는 문화 속에서 무엇이 진짜 ‘자연스러운’ 것인지 헷갈리게 한다.

2017년부터 ‘탈코르셋 운동’이라는 것이 10~20대 여성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SNS를 통해 여성에게 강요되는 긴 머리, 날씬한 몸매, 화장한 얼굴 등의 기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왜 특정한 연령대와 성별에게만 집중적으로 이런 억압이 작동되었을까? 한 초등학교 교사가 SNS에 이런 것을 공유한 적이 있다. 자신의 학급에서 ‘자신의 눈에 대해 설명해 보자’라는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자아이들은 ‘눈이 작다’, ‘쌍꺼풀이 없다’ 등으로 적은 반면에 남자아이들은 ‘0.3이다’라고 적었다고 한다. 10년 남짓 된 학생들 사이에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왜 특정 성별에서만 외형을 선망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⁶⁸⁾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한 어린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마자 나에게 자신의 담임 교사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평(얼굴평가)을 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 꽤 놀랐던 기억이 있다. 아무렇지 않은 그 행동은 청소년 사이에서 이미 내면화되어 있었다.

2018년 JTBC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은 한국 사회의 외

67) 정수임(2019), 『십대를 위한 동화 속 젠더 이야기』, 팜파스.

68) 이민경(2019),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 한겨레출판, 203쪽.

모지상주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되어 교육 자료로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어렸을 때부터 ‘못생겼다’는 이유로 자주 놀림을 받았던 주인공 미래 (특히 이 드라마에서 미래의 성형수술 이전의 얼굴을 카메라에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그것은 ‘못생김’의 기준을 미디어가 다시 재현하는 방식을 비켜나가는 똑똑한 설정이었다)는 성형수술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대학에 오자마자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점수를 매기는 장면이 등장한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을 대하는 방식에서 ‘여성의 성상품화’가 드러나는 등 한국 사회의 현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미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내에서는 주변 친구들의 얼굴과 몸매 사진을 올리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 점점 ‘일상화’를 넘어 ‘범죄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교육 도구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이유로 교육에서 ‘외모’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신경을 쓰는 편이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사말’이나 ‘언어’ 속에서 이런 내용을 생각보다 많이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요”, “(나이보다) 젊어 보이세요”,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등은 “식사하셨어요?”만큼이나 자주 사용하는 듯하다. 내가 몇 년 전에 원인 모를 피부병이 생겨서 얼굴에 빨갛게 여드름이 심하게 올라온 적이 있었다. 그때 느꼈던 것은 그 피부병보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건네는 말이 더 스트레스였다. 물론 걱정해 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피부에 ‘무관심’한 것이 편했다.

또한 외모 언급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척도나 칭찬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만연하다. 교육진행자가 사람을 소개하게 될 때 흔히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간단하게 직함과 이름만 소개하는 것이 낫았는지 그것에 덧붙이는 말은 꼭 외적인 평가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날씬하지만 사실은 아이 둘이나 낳은 엄마랍니다”, “우리 단체에서 가장 외모가 빼어난 분입니다” 등 외모 칭찬을 흔하게 듣게 된다. 그 사람의 다양한 면 중에 왜 꼭 외모의 언급만이 중요한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해보자. 무엇부터 이야기하게 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얼굴형이 어떻고 외형이 날씬하다, 뚱뚱하다는 식의 외적인 묘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지는 않는가? 이제 개그 프로그램 소재에서도 ‘

못생김'으로 웃기는 시대는 지나갔다. 한 사람을 설명하는 방식은 외모 빼고도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연습해 보자. 나는 교육 참가자들과 만나면서 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예리한 질문을 하는 이들이었다. 다음의 인용구 저자도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대화의 주제가 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온전히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된다.

“외모에 대한 집착은 여성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뺏어간다. 그리고 꿈과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 세상을 마주하는 대신 거울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지 않는다. 대신 몇 년간에 걸쳐 주입된 문화,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들은 말, 그리고 내적 고민에 의해 형성된 모습을 본다. ...대화의 주제는 매우 많다. 굳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⁶⁹⁾

69) 러네이 엔겔른(2017),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김문주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③ 입장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을 최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교육에서도 서로의 공감과 이해를 위해 이 단어를 자주 활용한다. 타인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서울 태생인 내가 고등학교 때 3년, 최근 3년간 서울을 떠나 있으면서 보이는 것들, 한국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던 인종차별을 해외에 나가면 겪게 되는 상황 등 개인의 입장은 그 위치성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경험, 정체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번은 성소수자 친구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다. 남자아이가 분홍색 옷을 입고 싶어 하고, 인형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모습에 엄마가 기겁을 하며 ‘남자아이답게’ 바꾸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 그 프로그램에 제보한 사연이었다. 젠더 감수성이 없는 육아 전문가를 그것을 ‘교정’하는 식으로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친구는 화를 내면서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이라며 방송국에 항의하겠다고 했다. 그 당시 같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계기점이 되었다.

또 한번은 기차를 타기 위해 집에서 급하게 나섰는데, 하필 그날 따라 버스가 늦게 도착해서 마음은 더 분주했다. 몇 정거장 지나서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그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버스의 뒷문에 리프트 장치가 고장 나서 휠체어로 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버스는 십 분 이상 정차하였고, 그 장애인은 휠체어를 직접 들어 올려주는 몇몇 승객의 도움으로 겨우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평소에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저상버스의 문제가 아니라 기차 시간을 놓칠까 봐 안전부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

이 두 개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는 교육 현장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성찰해 보기 위해 가끔 언급하곤 한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과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성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감수성이 장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배워 나가는 과정이

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은 중요하다. ‘성소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특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타자의 입장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의 폭행과 갑질로 한 경비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사건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애도하고 가슴아파했다. 생각해 보면 큰 폭행만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부터 이미 가해는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침에 출근 차량이 빠져나갈 때 경비 노동자로부터 인사를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우위’에서 있는 듯한 그런 감각을 경계해야 한다. 노후 불안감 속에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하고 내뱉는 발화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자꾸 놓치게 만든다. 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경비 노동자, 택배 노동자를 위해 ‘한 평 카페’를 만들어 무료로 커피, 차 등을 나눔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타인을 대상화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이런 일이 아닐까.

한편 다른 사람의 입장을 너무 함부로 재단하는 경우도 경계되어야 한다. 각자의 시간, 위치, 장소 등에 따라 입장은 바뀌어지기 마련인데,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듯 말하는 순간 위험해진다. 흔히 여성이 같은 여성을 향해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한다. “나는 예전에 임신하고 출산한 지 2주 만에 직장에 복귀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생리휴가, 난 한 번도 안 썼다” 식으로 같은 여성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경험에 빚대어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남성 또한 마찬가지로 군대 문화의 부조리함을 언급하기는커녕,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진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취급하는 순간 그 이면에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군대 내의 문제를 드러내기가 어렵다. ‘경험주의’의 위험성은 또 다른 고정관념과 차별을 재생산한다(“내가 해봐서 아는데” 따위의 말은 이제 그만 좀 듣고 싶다).

‘살색’이라는 명칭을 ‘살구색’으로 바꾸어 낸 유명한 사례는 ‘시민운동’에서 역지사지가 왜 중요한지 단초를 제공한다.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을 하는 아빠는 피부색의 명칭을 ‘살색’으로 부르는 것은 피부색이 다른 이들을 인권 침해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중학생 딸은 ‘살색’ 명칭의 대안으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살구색’

을 제안했다.⁷⁰⁾ ‘나’ 중심으로 사고할 때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타자’의 입장으로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 산적해 있다.

울산에서 조건만남에 나선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이 건의 판결문을 잠깐 언급해 보고 싶다. 사실 가출 청소년을 향한 시선은 편견이 가득하다. 이들이 왜 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이면은 간과한 채 ‘자발적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낙인찍는다. 이 사건의 판사는 “자발적으로 조건만남에 나섰다고, 스스로 사진을 전송했다고 아이들을 타하거나 가해자들의 죄책을 줄여주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어른들이 쳐 놓은 거미줄에 걸려 신음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왜 이런 거미줄에 걸렸냐고 타하지 않고 거미줄을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⁷¹⁾라는 말을 남겼다. 법과 제도에서도 누군가의 입장에 서는 일이 왜 중요하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 동물의 입장에 서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에밀 시오랑은 “만일 글을 깨우친 벌레 한 마리가 자신의 비극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비극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라는 말을 했다. 동물 입장에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이 보일 것이다. 흔히 부당한 취급을 받는 인간에게 소위 ‘침승 취급’이라는 말을 쓰지만 동물 입장에서는 평상시 받는 취급이 된다. 어떤 이들은 인권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동물권이냐는 비난을 한다. 동물 권과 인권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 보자. 그 인식은 저항의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연대를 확장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소수자 해방 운동은 또 다른 소수를 억압하는 모순도 피할 수 있게 한다.⁷²⁾

70) 최소란, 「“피부는 살구색입니다”」, 『뉴스앤조이』, 2005년 6월 1일,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053>

71) 엄보운, 「“자발적 성매매” 주장에... 논문 7개 인용하며 “순수한 자발적 성매매 없다” 반박한 판사」, 『로톡 뉴스』, 2020년 10월 21일, <https://news.lawtalk.co.kr/article/MD9IKTXQ88WV>

72) 정혜윤 외(2021), 『절멸』, 위크롬프레스, 131쪽

4. 민주시민교육,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장

이 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먼저 페미니즘 관점으로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 5곳에 연락하여 직접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페미니즘 관점의 시민교육을 어떻게 교육 내용에 담아내고 있는지,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갔으며,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요약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뷰했던 활동가들의 검토를 사전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부족한 탓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나에게 배움이 되는 내용,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각자 읽는 독자마다 상이할 것 같아 별도로 코멘트를 달지 않았다.

이어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함께 만나 현재의 시민교육에 대한 검토를 생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동안 시민교육을 오랫동안 해 왔던 단체, 교차적인 시민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 4명을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온라인 줌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다소 아쉬웠지만, 끊임없는 웃음소리를 지면에 다 담아내지 못한 것 또한 더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렇게 만나는 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에코페미니즘이 시나브로 스며들도록

- 여성환경연대 김민지 에코젠더팀장 인터뷰

여성환경연대는 1999년에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여성환경운동 단체로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활 속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 세대별 여성건강교육 이슈 개발 및 자료 발간, 저소득층 여성 건강권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연의 속도에 따른 삶, 작고 소박한 일상을 실천하는 초록대안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ecofem.or.kr>

‘여성환경연대’의 서포터스, 교육활동가팀

저희는 교육활동가 팀을 따로 꾸리고 있어요. 상근 활동가들도 때로는 강의 주제에 따라 학교 등으로 교육을 나갈 때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이분들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사무국에서 교육활동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성환경연대가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는 연구자 모임의 성격이 강했어요. 환경과 젠더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과 교집합을 만들고 싶었고, 전문가 네트워크 모임에서 대중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때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환경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몇 차례 진행했고 그때 결과적으로 남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양성과정을 진행해도 사실 남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강의 보수가 적기도 하고, 교육 횟수가 들쭉날쭉 하고, 들이는 품은 또 크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강사진이라기보다는 여성환경연대의 물질적, 정신적 서포터스죠.

이분들은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보는데 여성환경연대에 응원한다는 마음 더하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남아계신 분들이죠. 사실 양성과정을 한 뒤에 교육활동의 기회 보상이 충분히 있어야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이 남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몇 주간의 양성과정을 조

금 하고 바로 교육에 나갈 수는 없거든요. 한 사람의 마인드, 애티튜드는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잖아요. 교안은 단기간에 학습시킬 수 있지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태도로 만나는지, 라포를 형성시킬 때 어떤 스킬을 쓰는지 이런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과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최근에는 여성환경연대 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이지 아닌 ‘시민활동가 양성과정’이라는 폭넓은 이름을 내걸고 교육을 진행했어요. 참가자들이 이 교육을 듣고 어디를 가든, 이것을 기반으로 어떤 활동을 해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고 생각했죠.

최근 3년 사이에 교육활동가 팀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8명 정도 계셨는데, 교육활동가가 아닌 그냥 회원으로만 남고 싶다는 분도 계셨고, 지역으로 내려가시게 된 분도 생겨서 인원이 대폭 줄게 되었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교육활동가 교육을 시작했던 것도 있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분들의 교육 기회가 많이 사라졌죠.

강사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

한편 교육활동가팀을 어떻게 꾸려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지금의 구조가 개개인의 신뢰와 희생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죠. 사실은 교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채로워야 공감대도 넓어지고 보지 못하는 오류나 잘못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의 형태가 아닌 분들도 계셔야 저 사람의 예시가 너무 ‘정상가족’ 중심인데 날카롭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운영 방식은 그렇지 않은 분들만 남을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건이나 두 건 들어오는 강의를 하기 위해 수시로 교육도 듣고, 매주 회의도 하고, 서로 서로 교안 모니터링도 하고, 무급으로 강의 따라 나가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이 사실 가능하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 이 팀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명맥을 끊지 않고 이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언제부터 강의 기회를 드려야 하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드는 고민이에요. 1년 있으면 적응을 해서 내보내도 되나? 2년 있으면 내보내도 되나? 돌발 상황에서 말실수는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정해진 기한 같은 것이 있지 않으니까 늘 고민이에요. 한번은 어떤 분

이 수업하다가 뜻대로 안 되자 “3반은 안 그랬는데 너네는 왜 그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튀어나왔겠어요. 그렇지만 그 수업을 모니터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또 한번은 제가 강의를 나갔을 때 어떤 분이 강의실에 일회용 컵을 준비해 줬는데 제가 그것을 안 쓰고 텀블러를 썼거든요. 강의평가에 보니 그게 새로웠다고 써주셨더라고요. 강의도 강의지만 강사의 태도 자체가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교육 진행에서 중요한 자세

저희는 ‘열린회의’라고 해서 중요한 안건을 조직적으로 공유하는 월례회의 자리가 있어요. 그 모임에 교육활동가팀 모임지기 하시는 분이 의무참석을 하셔서 교육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고, 저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정사항에도 함께하시죠. 사무국 활동가 중 1명이 교육활동가팀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두고 있는데, 현재는 그 역할을 제가 맡고 있어요. 상근활동가들과 협력할 일이 있으면 준비도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미세플라스틱 이슈를 처음 다루기 시작할 때 사무국활동가와 교육활동가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수업안을 짜고 평가도 같이 하면서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대상층을 초·중·고등학생, 성인 이렇게 임의로 구분해 놓긴 했지만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육의뢰가 들어오는 대상층에 맞춰 진행을 다르게 합니다.

교육활동가들이 교육을 다녀오면 평가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혼자 교육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같이 가서 모니터링하죠. 교육활동가 중 신입 활동가인 경우에는 초반에 시연할 때 활동가 2명 이상이 들어가서 피드백을 합니다. 최대한 수업하는 것처럼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학생인 척 리액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진행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예시는 적절했는지, 주제를 잘 설명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 더 피드백을 하는 편이에요.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 서로 간에 일깨우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교육 내용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해야 할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사무국 활동가들이 단호하게 요청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친근함의 표시로 청소년 참가자들에게 사용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탈권위적 표현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교육시간에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선언을 하기 위해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벌써 몇 년 전 일이지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여태 잘 사용했는데 왜 문제적인지 잘 모르겠다”, “이것이 억압 비하의 표현이 아닌데 왜 안 되냐”라며 안에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과한 것 아니냐, PC함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 등 교육활동가뿐만 아니라 지부의 교육활동가까지 토론의 과정을 거쳤어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용어와 호칭의 문제를 높은 차원에서 정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무처가 개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참가자별 개인 상황에 맞는 맥락이 중요

아무래도 최근 교육은 월경과 관련된 것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플라스틱 프리, 얇고 흡수력 좋은 생리대와 여성 몸의 관계 등에 대해서요. 저희가 생리대 보편지급운동을 계속 해 왔는데, 이것이 왜 인권의 문제인지 그런 이야기도 나눕니다. 교육 대상층의 관심도에 따라 월경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면생리대를 만드는 워크숍도 진행해요.

전체적으로 일회용품을 반대하고 플라스틱프리월경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면생리대 쓰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활동보조인에게 부탁할 것이 많은데, 생리대까지 빨아 달라고 어떻게 부탁하겠어요. 면생리대 사용이 절대 진리이다, 당장 바꾸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개인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죠. 만약 장애인단체 쪽에서 교육 의뢰가 들어오면 이분들은 일회용 생리대를 쓸 수밖에 없다 보니 안전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기 위해 제조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박하는 운동을 소개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인권 감수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교육 의의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먼저 언질을 주시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다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연락이 오면 그중에서 통역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는지, 통역이 제공되는지 정도를 체크합니다. 어떤 경우는 활동보조인이 같이 참여하는 수업이나,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큰 행사, 예를 들면 에코페미니스트 콘퍼런스 같은 것을 진행할 때는 필수적으로 수어통역을 배치하고 준비합니다.

감수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희가 사무처, 열린회의의 멤버, 지부나 교육활동가, 핵심 멤버가 함께 들 수 있도록 ‘인권 감수성 교육’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교육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장애인 인권운동의 키워드는 무엇이고, 우리랑 접점은 무엇인지 등 그때 그때 필요한 특강을 잡아서 연 몇 회 이상은 하려고 해요. 물론 특강 한 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했던 얘기지만 또 하고 또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잊어버리기도 하고. 구성원들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니까요. 교육활동가분들도 외부에서 들었던 다른 교육 등이 있으면 공유하면서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대”라며 정보도 주고받습니다.

풀뿌리 지역에서는 여전히 교육 중요

교육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교육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워낙 많아졌잖아요. 예를 들면 초창기에 여성환경연대가 주력했던 교육 중 하나가 아토피라는 사회적 의제였는데, 이것 하나로 먹거리를, 생태교육 등 얘기할 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협, 식생활네트워크, 또 다른 환경단체 등에서도 하고, 교육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단체도 많아지다 보니 우리가 굳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교육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젠더와 생태적 관점을 섞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경계를 흐리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여성환경연대 지부에서는 대개 교육 기획을 따로 해요. 본부와 다르게 지부는 여전히 교육이 사람들과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해요. 물론 교육

의 횟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는 그런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기르는 과정이니까 프로그램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본부로 오기 전에 지부에서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지부에서 하는 활동은 여성운동이기도하면서 환경운동, 풀뿌리운동이기도 합니다.

동북여성환경연대의 활동팀은 생태팀, 성평등팀으로 나뉘져 있어요. 예전에는 건강팀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건강팀이나 생태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젠더 감수성이 없는 발언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분들에게 이제는 젠더가 중요하고, 이것을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한다고 전달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건 너무 어렵고 내 영역에서 해 온 가락이 있는데, 왜 자꾸 침범하느냐” 라면서 초기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러나 지금은 젠더가 지식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우리 단체의 기본 가치이자 누군가를 만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 감수성이라는 것을 오랜 진통 끝에 이제는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한 어려움, 그러나...

저는 그동안 성평등 교육을 오랫동안 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학교에 강의를 갈 때 갖게 되는 두려움 같은 것이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논리적으로 싸운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짧은 45분 안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인터넷 속에서 들은 수많은 ‘카더라’를 방어해야 한단 말이죠. 너무 디테일한 것에 해명 아닌 해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드러내고 말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다”, “내가 다 반사해 낼 수 있어”라는 느낌으로 가기 전에 정신무장을 하고 갑니다. 오랫동안 만나면서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야기, 저 얘기 나누면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짧게는 1차시, 길게는 5차시 만나면서 수많은 소리를 떨쳐내야 하는 딜레마가 있죠. 남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성 페미니스트가 전달하는 데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여러 실패담이 또 있기도 하죠. 마지막에 “형이랑 잘 지내보자, 궁금하면 형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남성연대의 마무리. 그 강사단을 운영했던 활동가들의 좌절감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저는 원래 화장품, 비누, 면생리대 등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여성환경연대를 만

나면서, 정확하게는 에코페미니즘을 만나면서 저의 여러 다양한 관심사가 하나로 설명되는 줄기를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무엇을 만드는 일과 페미니즘과 접합된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걸을 만나면서 해석의 틀도 생겼죠. 가정을 꾸리고서도 그 안에서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양육이라는 것도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면서 그와 동시에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갈등도 처음엔 버거웠지만 에코페미니즘을 만나면서 돌봄에 대해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저의 경험처럼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점차적으로 에코페미니즘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요.

② 인권과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인권교육센터 ‘들’ 정주연(루트), 박지연(연잎) 상임활동가 인터뷰

‘들’은 2008년 인권교육 전문단체로 출발하여 인권교육이 가장 인권교육다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지침서 발간 ·인권교재와 인권도서 발간 ·인권교육가 입문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최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미개척 영역의 인권교육과정 개발 ·장애, 노동, 다문화, 빈곤, 청소년 등 영역별 경계를 넘는 인권교육 실천 확산 ·현장실천+연구+교육이 결합된 인권교육운동 실천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 ·소수자 운동, 특히 청소년운동과 긴밀한 연대 ·구술기록활동을 통한 현장연대 등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http://www.hrecenter-dl.org>

‘들’은 상임활동가, 활동회원, 후원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회원들은 해마다 총회에서 ‘들’의 중심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한 후 그 방향에 기반해 결정된 ‘팀’에 결합해서 활동하거나, 회원 간 관심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임의로 하는 소모임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팀에는 역량 강화와 교육개발팀이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작년부터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며 기후 문제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불평등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인권교육에서 어떻게 다룰지 공부하는 것이 역량강화팀의 과제로 정해져서 활동 회원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공부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에서 어떻게 담아갈까 프로그램도 기획해 보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결합하는 이들이 활동회원인데, 이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교육활동에 직접 합류하여 기획도 하고 교육해 나가기도 합니다. 활동 회원들이 교육에 결합하는 것은 ‘들’의 교육활동을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과 팀 활동의 결과로 자신에게 쌓인 교육 역량을 풀어내고자 할 때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 이것은 개인이 원하고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 한하여 제안드립니다.

교육을 준비하는 시간

연초에는 총회하기 전에 올해 같이 고민해 보거나 연구해 보고 싶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재난에서의 불평등, 돌봄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쟁점을 인권교육에서 어떻게 녹여낼까 공부를 하게 되었죠. 작년에는 남성 청소년들과 페미니즘 교육을 한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고민하면서 10대 페미니즘 교육 개발팀을 만들기도 했고요. ‘들’의 상임활동가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는 똑같은 주제의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교육자료를 다르게 만들어요. 혹은 때론 같은 PPT를 쓰더라도 실제 진행에서 내용은 동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흐름을 다시 어떻게 배치할지, 어떤 식의 토론 방법을 쓸지 프로그램을 다시 짭니다. 인권의 메시지를 참여자들에게 잘 나누고, 같이 어떻게 변화를 꿈꿀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외부에서 교육을 신청할 때 홈페이지 내 신청서만 보고는 파악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통화하면서 교육 신청 의도와 참여자의 상황이나 교육환경 등을 파악합니다. 주제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어때서, 어떤 맥락에서 이 교육을 신청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을 중요하게 거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조직 내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단체 국장이나 대표가 참여하느냐 아니냐 또는 학생 인권 교육인데 담임교사가 들어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 학생들이나 교육에 오는 분들의 위치와 발언,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조율합니다. 참여자들이 충분히 자기 경험이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조건을 확보하는 게 저희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교육 인원수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편입니다.

교육에 대한 회고도 중요

교육 이후에 매년 상임활동가들끼리 평가회의 방식으로 나누지는 않아요. 그 대신 교육이 거의 끝날 즈음에 참여자들에게 교육에서 인상 깊었던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궁금한 것 등을 포스트잇에 적어 달라고 하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보통 기관에서 교육 이후 점수 매기는 평가 설문 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어요. 참여자들이

적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이 교육에서 뭔가 발견하는 시간이 됐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떤 경우에는 이 경우는 아니었구나 식의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피드백으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 다음 교육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어떤 소통 체계로 바뀌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활동가들은 교육을 다녀와서 자신의 교육에 대해 회고한 것을 홈페이지 후기(인권교육, 살짜꿈)를 통해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4개월에 한 번씩 내부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때 교육활동에서 어려움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짚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한 교육을 평가한다기보다 활동가들이 교육 진행 과정에서 서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서로 어떻게 도울지 모색합니다.

‘들’만의 교육 프로그램

저희의 대표적인 교육은 인권 감수성 교육, 반차별 교육 등으로 지금까지 쪽 이어져 왔는데, 그 내용과 진행방법론은 계속 변화되어 왔어요. 인권 감수성 교육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초기엔 자기 경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했죠. 이것이 지금도 중요하죠. 이 교육을 통해 자기 문제들을 발견하는 힘이 생겼다고 해도 차별의 문제로 오면 다시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연결 짓지 못해요. 저 사람만 차별받거나 아니면 나만 차별받거나 이렇게 생각해요.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문제만 아니냐는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나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고민했죠. 예를 들면 기준을 달리한 사회로 설정하고 토론을 하니까 그 기준이 작동하는 것이 지금 현실로 들어오면서 자기 문제로 보는 감각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수자 간 다리를 어떻게 놓을지도 저희의 고민 중 하나예요. 그러다 ‘○○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남자 같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한국인을 부정당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식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 모임에 속해 있는지를 찾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경계를 자꾸 만들면서 부정한 사람 중에 나 또한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 ‘나’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다양하게 차별 받는지, 아닌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목소리박물관’이라고 좀 다르게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임 활동가들이 그동안 세월호 등 피해자들의 구술 작업을 자주 진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목소리 안에는 다양한 차별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정 존재의 구술 기록인데 다른 존재의 얘기와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해 보자 해서 목소리박물관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 사람들의 위치성, 마음, 상황까지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참여자들 입장에서 만드는 교육

저희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속 고민하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교육에서 참여자들의 생각과 마음에 조금의 변화가 싹텄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딱 멈추게 되는 지점을 발견하면 여기서 다시 나아가기 위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이 많잖아요. 이때 온라인에서 인권교육의 가치를 어떻게 좀 잘 살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필요할까를 고민했고 활동회원 분들과 함께 그 고민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하반기에 저희의 고민과 발견을 담은 가이드북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고개 넘기 워크숍이라는 것을 진행했어요. ‘들’ 회원이나 인권교육 활동가들과 함께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역량을 나누고, 교육에 대한 감각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장소 대여비, 간식비만 받고 거의 무료로 가깝게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인권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인권교육의 의미를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진행하다 보니 많은 고민이 들어서 한동안 좀 멈췄는데, 작년에 재개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내년에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교육에서 참여자를 고려하는 장면을 예로 들면, 교육 참가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이모티콘을 인쇄

해 가서 여기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자기 마음과 닮은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식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변형해요. 그리고 교육 사진자료 같은 것도 너무 성별 이분법적인 것은 아닌지 체크하기도 하고요.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요리사가 여자 사진으로만 되어 있는지, 소방관도 남자 사진으로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바꿔 가는 방식으로 고민합니다. 저희도 좌충우돌 실패할 때가 있기도 한데, 최대한 교육 전에 참여자들의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더 쉽게 풀 수 있었던 것을 너무 어렵게 풀었나, 너무 지식의 언어를 쓰지 않았나 고민하는 지점도 있고,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참가자인 경우에는 PPT 내용에서 사진을 더 많이 넣고 글을 좀 덜 쓰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안배를 고민해요.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는 교육 대상이나 주로 하게 되는 교육 안에서 이런 지점이 우리가 지금 못 건드린 것 같다, 이것과 연결 시키지 못한 것 같다고 느끼면 그런 쪽을 더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반폭력 내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채식에 대한 관점이 달라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원마당 같은 것을 열어 왜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진행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참여자 분석이 매우 중요

저희는 교육을 갈 때 참여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 어떤 내용이나 어떤 사례를 가지고 가야 좀 가깝게 느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자기 의견이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전 교육 신청할 때 이것저것 물어보고 해서 이러한 고민이 있겠지 하고 준비해서 갔는데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학교 교육 갈 때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교 규칙을 보고 가요. 학교 분위기가 어떤가, 경직적인가 개방적인가 이런 것이 규칙을 보면 학생 통제가 좀 있겠구나,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좀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준비하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준비해 가도 학칙과 무관한 분위기이면 또 미끄러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참여자 분석을 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참여자 간 돕고 배우는 과정

참여자가 장애인, 비장애인 따로 있는 것보다 같이 교육할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편하게 들고 있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장애인 내부에서도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모일 때 더 풍부한 얘기가 가능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IL)센터에서 교육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육을 신청하신 센터장님이 이들이 서로 차별하는 문제가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교육 진행 과정에서 권리카드에다 구체적 사례를 써 달라고 했는데 언어장애가 있으신 두 분이 표현의 자유에 자신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여쭙봤더니 “말할 수 없어서”, “내 말은 안 들어서”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때 거기에 계셨던 다른 회원들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숙연해졌어요. 장애 유형이 다르니까 다양한 경험이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와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도 내가 겪었던 시선을 겪고 있었구나, 내가 장애인인면서 또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더 풍부한 이해의 자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막 교육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PPT보다는 말로 풀어야 하고, 청각장애인에겐은 오히려 보여주는 이미지가 더 많아야 하고요.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진행의 어려움이지 오히려 그런 자리가 교육의 의미가 더 커요. 제가 교육 경험이 별로 없을 때 참여자 중에 뇌병변 장애가 심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들어서 자책감, 죄책감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활동가가 “그럴 때는 옆에 친구에게 물어보면 돼”, 그러더라고요. 오랜 친분이 있는 옆 참가자는 이분의 발음 상태를 잘 이해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과정이 서로가 또 서로를 돕는 과정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차별을 인식하도록 말을 거는 것

교육에서 참가자가 불편한 상황을 만들 때 당신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도 있지만 참여자와 권력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뭔가 망신을 주거나 짝어 누르는 방식이 효과적이거나 인권적인 방식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 존엄을 잘 유지하면서 이 의견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럴 때는 주로 다른 참여자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요. 이분의 의견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들은 동의하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분이 유독 목소리가 커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에 불편을 느끼고 자기에게 발언권이 넘어오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번은 성평등 교육에서 어떤 참가자가 남자도 힘든데 남자 힘든 얘기는 안 하고, 여자 얘기만 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다른 분들에게 “왜 남자 얘기가 잘 없고 여성 차별 얘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며 즉석 토론을 주선하기도 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 페미니즘 교육을 하는데 여성 중에서 “저는 성차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라고 대답하시는 참여자가 꼭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나는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우리 사회에 여자가 살기에 너무 좋은 세상인데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차별 사례를 들면서 “당신은 지금 차별받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도 아니고, 이분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하게끔 말을 거는 것, 둘다리를 놓는 것이 저희 내부에서도 계속 고민이고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위치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통의 대처 방법이 있는 것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어린 여성인 활동가가 교육을 갔을 때는 교육가를 무시하는 참여자분도 있었어요. 앞에서 설명한 PPT 내용을 그 활동가한테 가서 다시 막 가르친다거나 나이가 많은 남성분이 주로 그런 걸 좋아하시는데, 자연스럽게 남성이라는 위치성을 점유하면서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항상 온존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내용도 더 어려 보이는 활동가에게 가서 따지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계속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은 교사 교육을 갔는데, 한 정규직 교사가 교사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에 대해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교사들이 아니다, 우린 지금 이런 걸 누리고 있다며 말씀해주셔서 그분이 머쓱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육 진행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가 충분히 도움을 주기도 하세요. 차별받았다는 얘기보다 기분이 나빴거나 뭔가 마음에 짹짹하게 걸렸던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하면 거기서부터 그 차별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남성 참가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직접 경험한 얘기를 일단 좀 듣고 그 차별을 해석해 주는 과정을 좀 거치고 나서 얘기하면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그 분들도 가부장제라고 하는 이 견고한 틀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당함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③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서로에게 배움을 실천 - ‘피스모모’ 김영철 두어스랩 실장 인터뷰

피스모모는 평화와 일상, 평화와 교육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평화가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평화교육 분야를 연구, 조사하고, 그를 실천할 진행자를 초대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피스모모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체 연구, 정리한 P.E.A.C.E 페다고지-참여적(Participatory), 대화식(Exchange), 문화-예술적(Artistic-Cultural), 비판-창조적(Critical-Creative), 낯설게 하기(Estranging)에 기반하여 운영됩니다.

<https://peacemomo.org>

분단체제가 사회에서 총체적인 억압으로 작동하고 있고, 한국의 군사주의, 가부장제는 가부장 군인 남성에게 권력이 가고 그들이 보호라는 이름으로 다른 존재를 대상화, 객체화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통일’을 생각했어요. 통일교육 단체에 소속되어 통일교육원 강사로 2015년부터 시작했고 올해로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육 하시는 분 중에서 저와 문제의식이 같은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2015년에는 시기적 맥락도 있었는데, 박근혜정부하에서 통일교육원은 대부분 안보 중심의 통일 논의 또는 국가 중심의 통일 논의가 이루어졌고, 통일교육의 내용·방법 체계가 국가나 법에 의해 고정된 상태라 다른 의제 간 연관성이나 참여자와 수평적으로 만나는 방법 등을 고민하는 분은 많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제가 바꿔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렵구나, 애초에 통일을 지향하는 결과로서 상정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갖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피스모모를 만나게 되면서 통일 지향을 평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분단의 폭력성을 줄여 가는 과정이 곧 통일일 필요가 없고, 탈분단 평화교육 등 새로운 곳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피스모모의 페다고지

피스모모에서 만드는 교육은 훌륭하고 모범을 만드는 사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피스모모와 직접적으로 닿지 않더라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각자의 배움 공간에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목적이 있어요. 창립할 때도 공교육의 변화, 공교육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변화를 통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면서 생겨난 맥락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은 크게 투트랙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교육하는 방식, 외부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평화교육에 관심이 있는 진행자를 모으고, 능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일 년에 두 번 열고 있어요. 젠더, 기후위기 등 평화교육과 교차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주제로 월례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국내외에 평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충분치 않고 한계를 보완하고자 대안대학 교육과정인 모모평화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생기게 되면 급하게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해요.

만약 기획하고 싶은 주제가 생기면 누군가 제안해서 TF를 만들어 진행되는데, 먼저 초기에 사무국 회의에서 어떤 결과물을 예상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교안을 배포할 것인지, 작업 일정 등을 나누고 확인되면 TF팀 멤버들이 나눠서 작업하게 됩니다. 교안의 경우, 지식 정보를 많이 담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 그 주제가 무엇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페다고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만들어요. 이미 다른 전문가들이 연구하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하여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교차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개념이 권력인 것 같아요. 평화라고 했을 때 일상에서의 평안한 상태, 맛있는 것 먹는 것, 전쟁 없는 상태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일상 사회에서 어떻게 힘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누구에 의해서 권리가 박탈되는가, 그에 따라 누가 비정상적인 객체로 여겨지는가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권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당연히 젠더, 생태,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육에서 풀어낸다고 했을 때 교사와 학

생 사이의 권력, 참여자들 간의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교육을 수평적으로 추구한다고 해도 여전히 진행자에게 더 많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흐트러려고 하는 등 피스모모의 페다고지(5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기획, 진행하려고 하고요.

모모의 평화교육 진행자들

저희는 평화교육 입문과정을 1년에 두 번 여는데, 이것을 수료한 이후에는 ‘평화교육 진행자 되기 프로세스’ 체계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 내용은 직접 교육 현장에 나가서 진행되는 과정 꾸리는 것, 진행자 역량 강화 모임에 참여하는 것, 피스모모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부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약 60명이 있는데, 모두 교육을 진행하시는 건 아니고 연초마다 올해 교육이 가능하신 분들을 여쭙보게 되는데, 매년 달라요. 올해는 20명 내외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교육 신청서를 보통 4주 전에 받게 되면 진행자 선생님을 매칭하고, 보통 3~4명이 한 그룹이 되어 초동모임을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이번 교육에서 이런 포인트를 잡고, 이런 활동을 하자는 대략적인 활동 초안이 나오거든요. 각자의 기호나 관심사, 풀어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 교육의 맥락을 고려하는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합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교육 요청의 경향성은 청소년 교육이 많은 것 같아요. 또는 교사나 활동가 그룹의 시민 공부모임 같은 곳에서도 특화된 주제를 가지고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통일교육을 연구하는 교사모임에서 저희 탈분당 평화교육 책 읽고서 토론을 했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거나 지역 양육자 모임에 참여해 자녀와 어떻게 평화감수성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을지 등 집중된 고민을 나눠주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의 경우에는 진행자 선생님마다 각자 관심사나 의제, 전문성이 다르다 보니 교육팀에서 판단해서 요청을 드리는 편이에요. 진행자 선생님들의 교육 실천이나 성장의 기회를 고르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단체 차원에서 보면 퀄리티 컨트롤이 중요하다 보니 연

습을 실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준비 과정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저희는 교육신청서 문항 중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외하고 참여자들의 기존 학습 경험, 참여자 사이에서 있었던 일, 미리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문화,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물어봅니다. 워크숍이 몸 활동과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참여가 어려운 분들이 있는가? 그것이 육체적인 참여일 수도 있고 긴 시간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눈을 보고 이야기하거나 언어적으로 충분히 풀어내기에 안전하지 않게 느껴지는 분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지 물어봐요.

참여자 평가보다는 진행자 평가

모모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 방법이나 교육 장소, 참여자의 네트워킹 측면 등 10개항 정도로 평가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항상 저희가 원하는 이상적인 세팅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단 시간의 1회차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참여자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진행자 평가를 하는데, 교육이 끝난 직후 구글 설문지로 대략적인 기본 정보와 함께 진행 이후 돌아보았을 때 어떤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다음 기획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하고 싶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평가회의를 잡아요.

저희는 사실 대부분의 배움 공간이 한 명의 교육진행자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하다고 생각해요. 한 명의 진행자가 쪽 가는 것보다 서로 다른 진행자의 색깔이 더해졌을 때 참여자의 배움에도 새로운 역동과 기운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 의뢰 단체에서 예산 부족으로 공동 진행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지향합니다.

청소년들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진행자 선생님 중 청소년 그룹을 만날 때 상처를 받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교를 다닐 경우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고 진행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이미 어렸을 때부

터 경험해 온 학습이 성과나 대입을 위한 맥락으로 짜여 있고요. 그래서 보완하려 한 시도 중에 교육에서 만나기 전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작성해서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피스모모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저희를 만날 예정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그때 봐요” 식으로요. 자신들이 교육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초대받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사전 세팅을 합니다. 일주일 전 선생님을 통해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시도가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노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정례화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고민했고 현재는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학생들을 만나면 사전에 “이 교육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을 안다. 관심 없으면 다른 짓을 해도 괜찮다. 다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여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 있을 거다. 함께 배움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선택은 최소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한 반에 25명 이면 18명은 참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청소년들이 탄짓을 하거나 문제집을 풀어도 기분 나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마음먹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중팔구 상처를 받고 돌아오시는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 참여자의 입장을 진행자 그룹에서 충분히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마주하게 되는 불편함

참여자들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성평등, 평화교육이 잘못된 사회구조 폭력에 대해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고 바꿔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야기가 편향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가령 지난해 탈분단 교육을 진행했는데, 분단 폭력에 대한 이야기나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형성되어 왔다는 기이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너무 편향적인 교육 아니냐, 공동체의 자부심을 떨어뜨리는 교육이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하시죠. 적극적 평화에 대응하는 문화적, 구조적 폭력을 이야기할 때도 성별 고정관념과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성 참여자들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도 대응합니다.

진행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을 캐치하면 바로 사과한 경험을 나누는 적은 있어요. 가령 정부의 공식 명칭으로는 탈북자, 새터민, 북한이탈 주민으로 바뀌어 왔는데 ‘탈북자’가 북에서 온 사람, 대상화한다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북에서 오신 분들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탈북민, 탈북자를 사용하시거든요. 대부분의 명칭은 그 명칭 자체보다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전의 맥락과 고려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어가 익숙해서 교육에서 사용하다가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북에서 온 사람을 구분하고 아래에 두려는 대상화의 목적이 아니라 제가 이전의 관계 맺어온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온 것이다”라고 설명하지만 그 해명이 언어 자체로 힘이 있다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전의 교육 진행, 그 이후의 교육 진행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대상화하지 않고 수평하게 만나는지 실천에서 좀더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 단체적 차원의 고민 지점

우선 단체 차원에서는 교육을 평화운동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고 교육의 시공간이 곧 평화운동의 현장이거든요. 참여자들과 나누고 싶고, 만들어 가고 싶은 변화는 분단체제에서 더 강화된 군사화 사회에서 생긴 위계질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다르게 해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워크숍을 주로 진행하고 싶은데, 항상 그 메시지만으로는 접속할 수 없잖아요. 레크리에이션이나 학기 초 관계 형성 워크숍 같은 요구가 많거든요. 물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하지만 그 비중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애초에 저희가 의미화하는 것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외부 교육이 아니라 자체 프로그램 등의 루트를 만들어서 보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등의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과 현장에서의 괴리가 가장 큰 차원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는 서로 배움, 수평적 배움, 민주적 배움 다 좋는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배움을 추구하는 진행자는 역할상으로 가르치는 교사에 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답이 참여자들로부터 나오도록 설계하는 것이 서로 배움 진행자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맥락 없이 진입하시는 경우에는 방법적으로만 남게 돼요. 교육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참여자들이 나눠준 이야기를 평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맥락화할 것인가, 의미화할 것인가, 이후에 질문을 어떻게 던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되죠. 어떤 주제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이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자의 인풋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배움의 방법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행자의 언어 비중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만 경계하고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부족함으로 진행자의 언어 비중을 높였을 때 다른 진행자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 중간 사이에서 어느 지점을 찾아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분명히 가르침이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무조건 방법적으로 이 방식으로만 진행되어야 한다고 신성시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통일교육을 해 온 맥락에서 저의 언어 비중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모색 중입니다.

④ 울타리를 넘어, 관계 맺는 교육

- ‘장애여성공감’ 여름 활동가 인터뷰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을 배제하는 제도와 기준이 지닌 문제에 공감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8년에 만들어졌고, 교육 콘텐츠 개발, 장애여성 관련 성·인권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에 대해 장애와 젠더 관점으로 성찰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운동 차원에서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장애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회 변화를 도모하고 그에 따른 지지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https://wde.or.kr>

장애여성학교 등 확장되고 있는 공감교육

공감교육은 크게 내부에서 하는 활동과 외부에서 요청하는 교육으로 나뉘게 되는 데요, 내부에서는 자조모임 중심으로 장애여성학교가 있어요. 의무교육에 배제된 장애여성이 많기 때문에 한글반, 미술반, 체육반, 여성주의반 등 문해교육부터 인권교육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에 따라 달라지기는 한데, 주로 발달 장애여성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올해 12년째이고, 메인 타이틀은 ‘울타리를 넘어’입니다. 저희 올해의 키워드가 ‘탈시설’이라서 각자의 활동을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시설화라는 것이 거주시설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통제되면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포함해서요. 실질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는 공모사업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학교 운영시기에 공백이 생기는 등의 한계가 있어요. 회원들이 너무 기다리는 활동이라 이것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외부에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인권교육 범주 안에서 장애이해교육, 특히 성교육,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양성 교육, 반성폭력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성교육도 저희가 특

별히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고, 주변인 교육, 특히 부모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IL(Independent Living)센터인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에서는 장애인과 가깝게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력자 교육을 해요. 사실 탈시설운동 안에서 주변인 교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 조력 받을 수 있는데, 활동지원사들의 보수교육도 숨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같은 것이 의무화된 교육인데, 발달장애인 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제도 안에서 확보된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사 역할이나 교육 내용 구성, 교육 진행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많이 필요하지요.

장애인을 대상화하지 않는 교육

현재 외부로 나가는 교육은 상근 활동가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015년부터 5년 정도 공감 강사단을 꾸려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해소한 상황입니다. 최대 10명 정도가 활동하셨는데 운영이 쉽지 않았어요. 매뉴얼이나 강의 스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내용을 담아 교육활동을 하다 보니 활동가 포지션이잖아요. 꽤 공을 들여서 워크숍도 하고 강의교육안도 상의해서 만들어보고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판단을 했어요. 강사들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내부 활동가들과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 활동가들을 키워내는 것에 집중이 더 필요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 현상이 일상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써요. 이걸 실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강사들이 일상에서 장애인들과 관계 맺기라는 것이 계속 이어가면서 고민을 지속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점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기존 성규범을 반복한다거나.... 예를 들어 문제점에 동의는 하지만 실제 자신이 말하면서 현장에서 다르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거나 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은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대상화될 가능성도 많아지고요. 한편 어떤 부분은 부담도

있었죠. 공감에서 지향하는 내용을 강사단 교육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기준점을 찾아 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저희 단체를 신뢰해서 요청했는데, 활동가가 아닌 강사단의 강사를 파견했을 때 요청한 기관이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를 어떻게 담보해야 할까. 그리고 개별 강사가 직업으로 생활이 가능해야 하지만 그렇게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공감 강사단 외에도 여러 창구를 통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교육 현장에 나가시게 되죠. 그 과정에서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 내용의 톤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까지 강사단 관리 차원으로 하기에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고요.

접근성 확보 중요

교육 의뢰가 들어오면 주제나 참여할 사람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먼저 가능 여부를 1차로 판단해요. 그리고 내부에서 누가 준비할 것인지 결정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 통해서 교육안 만들고 의견 검토 받는 과정을 거치죠. 현장에 나갔을 때 역동은 강사가 잘 알기 때문에 의미 있었던 것들, 질문사항, 이후에 비슷한 강의를 했을 때 반영했으면 하는 것들을 본인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산 책정이 가능하면 교육 나갈 때 역동을 보기 위해 활동가가 한 명 추가로 가서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어요.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사업 운영 시에는 보조강사 배치나 이런 게 가능한데, 다른 경우에는 예산 규모상 쉽지 않습니다. 장애여성활동가가 교육에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물리적인 접근성 확보가 가능한 교육장소인지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저희는 주로 발달장애인을 많이 만나요. 그분들을 위해 쉬운 자료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런 교안을 준비하긴 하지만 이게 꼭 발달장애인들에게만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만나는 활동지원사 현장에서도 비장애인이지만 중년 여성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한글을 모르시거나 혹은 어려운 표현 대신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당사자를 위해서 만든 자료가 활동지원사분들에게도 유용합니다.

언어중심적 교육을 뛰어넘기 위해

작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오셔서 머물 수 있는 주거 선택지인 ‘장애인지원주택’이 생겼어요. 당사자가 주인이 되는, 행정적으로도 내 집이 되는 이 제도 덕분에 지역사회로 나오시는 분이 더 많아진 거죠. 그분들의 장애유형이 발달장애, 중증인 분이 많은데, 저희도 장애 감수성을 가지고 만나고 있지만 생각해 보니 여전히 언어 중심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성교육을 할 것인가, 도전이 생긴 거죠. 저희도 이미 익숙한 것이 있어요. 그동안 교육을 하면 한글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대화는 가능한 분들이었거든요. 대화라는 것이 음성언어잖아요. 자기만의 표현으로 소리를 소통하시는 분들, 비언어적 의사소통하시는 분들과 만남이 늘어나고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한글반도 12년 동안 빠짐없이 중요하게 이어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한글을 알고 습득하는 것이 삶에서 많은 것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우리가 몸으로도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음악반에 오시는 분 중에 아주 중증이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특히 주변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쉽게 평가받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무언가를 원할 때 손바닥으로 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을 매번 동일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게 달라요. 이분이 무엇이 좋고, 싫고, 궁금하고, 신기해한다는 느낌을 저희도 시간이 쌓여 가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실제 만나면서 관계 맺고 있는 담당 활동가들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보완하려고 해요. 언어 중심을 벗어난 교육 현장이 어떻게 가능해질 것인가, 이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도전입니다.

관계를 전복하는 교육

현장에서도 당연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생각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들의 기본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반대로 교육을 의뢰하거나 참여하는 경우도 강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비장애인으로 상상하고 있다가 장애인활동가가 왔을 때 당황하더라고요. 물리적인 접근성이 가능하다고 했는

데 현장에 가보니 아닌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당사자분들을 강사의 위치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발달장애인 회원, 회원경력 연차가 쌓인 훈련된 회원, 자조모임 ‘발달장애여성합창단 일곱빛깔무지개’라는 합창단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가 있거든요. 자조활동을 하는 회원그룹이 활동 연차가 꽤 쌓여서 반상근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주로 현장에 가십니다. 회원 활동 안에서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드러내는 과정이 중요한데 교육 현장에서 회원들이 직접 역할을 맡으며 교육을 진행하고 차별 경험을 말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부분이거든요. 차별을 사회적인 관점으로 이해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교육현장을 통해 장애여성 회원들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관계를 확장해 가는 계기도 되고, 교육생에게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성교육을 하시는 강사분을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진행할 때 장애인 당사자들이 강사로 가게 되면 관계가 전복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족하고 배워야 하는 입장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교육 강사들은 변화를 만들어 가는 입장이기도 한데 “발달장애인에게 성적 권리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강사들이 실제로 발달장애인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본인이 발달장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리고 진행해 온 교육을 모니터링해 보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건 강사들에게도 기회이지만 당사자들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선생님이야, 저 사람이 내 말을 중요하게 듣고 있어” 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도 수익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이 당사자들의 주체성을 높이는 데 꽤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고, 시민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그 감각이 연결되잖아요. 또한 집에서도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가족 간 관계에서도 조금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다양하게 함께하시거든요. 보통 지체장애인도 어떤 강사로서 상상되는 존재가 아닌데, 강사 역할로 등장하며 우리 사회 편견을 흔들고 장애가 있는 몸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함께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극을 만듭니다. 교육연극이라는 틀로 성교육을 포함해 다양한 인권교육을 진행하시거든요. 성적 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일상 관계에서의 상황을 기반으로 연극 방식으로 꾸미게 되는데, 꽤 반응이 좋습니다.

주변인 교육도 중요

여전히 교육 의뢰가 올 때 많은 경우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 대해 문제시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활동 경험을 통해 봤을 때 장애, 장애인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 상황도 결국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당사자 개별 교육보다는 주변인 교육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어떨까가 제안하고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문제가 되는 식으로 이야기되지 않기 위해 주변인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계속 장애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장애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 사람이 안 해야 해, 참아야 해” 이런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바지를 내린다, 자위를 한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는 그럴 때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드려요. 주변인들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 당장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고, 핵심은 고민하는 당신, 무관심하게 두는 당신, 옆에 있는 당신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재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비장애인도 어떤 순간에는 약자의 위치에서 차별을 받기도 하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돕고자 하는 사람도 분명 가해나 차별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내가 차별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떤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한번은 저희가 장애 인식 개선 활동으로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그제 구청의 허가가 필요한 과정에서 ‘무심코’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유는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는 것이었어요. ‘무심코’는 의도가 없다, 행위자의 의도성을 지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들의 문제 제

기, 책임을 묻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비장애인을 옹호하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차별은 강도와 별개로 아주 의도성이 분명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시선을 보낼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반말할 것인지, 내가 함부로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의도가 분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제기해야 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주변인 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한편 시민을 만나는 교육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나, 전혀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도 여전히 많아요. “얼마나 좋아졌어, 장애인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길가, 건물의 수많은 턱 때문에 못 가는 곳이 천지잖아요. 아예 없는 존재로 취급하거나, 인식을 하더라도 하나의 얼굴로만 한정되어 생각하는 것을 깨고 싶죠. 이들은 다채로운 사람들이고,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변화는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육을 통해 새롭게 관계 맺기

현장에서 운영 방식도 아무래도 주입식보다 참여형으로, 교육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죠. 그리고 접근성 등 조건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사는 당사자 이야기를 많이 담아서 가려고 해요. 제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인 저로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최대한 현장에서 겪는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고민, 논의 과정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온전히 피해자로서만 삶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이야기,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질문하지 않고, 일상을 궁금해하지 않죠.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존중을 배워 나갑니다.

장애라는 키워드를 사회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할 때 성소수자나 이주민 차별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여성도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사는 여성이잖아요.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공감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알아가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는 무엇인

지, 정체성은 무엇인지, 다양한 사랑이라는 맥락을 배워 나갑니다. 발달장애여성들은 성폭력 피해의 경험이 많은데, 주로 만나는 남성들이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던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남성 집단, 너무 친절한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갈등적이었어요. “애인은 될 수 없지만 우린 친구야.” 이런 것이 큰 경험이죠. 교육 안에서도 장애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때 다른 소수자들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게 되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나건, 당사자로 만나건 교육 안에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게 될 경우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인지 고려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요. 교육 이후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트워크거든요.

저희 단체가 벌써 23년 활동을 지속하면서 점점 더 넓고 다양한 요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 활동이 만들어 내는 변화로서 장애여성의 관점을 담은 교육을 요청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가움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기회를 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보니 감수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더 치열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⑤ 이주여성이 삶의 주체가 되는 교육

- '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팀장 인터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원, 교육하고 관련된 정책을 개발, 제안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2001년부터 국내 최초로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06년부터는 400여 명의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성폭력상담원 교육, 인권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하였고, 이들은 전국의 상담센터 및 쉼터 등에서 이주여성을 돕는 상담가 및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http://www.wmigrant.org>

이주여성을 임파워링하기

저희가 처음 이주여성인권센터를 설립했을 때는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한국어교실을 운영했어요. 배우자들도 아내의 언어를 같이 익히는 것이 성평등한 부부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대상으로 베트남어를 배우는 교실을 만들기도 했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초반에는 인권 감수성이 묻어나는 한국어 교재가 필요했어요. 가부장제 질서 안에서 호칭 사용이라든지, 여성의 역할로 범주화되어 있는 언어를 먼저 습득한다든지, 이런 것에 고민을 했고, 전문가들과 함께 인권을 담은 한국어 교재를 발행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한국어를 배우러 갈 수 있는 곳 자체가 별로 없었지만 현재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 곳이 워낙 많아져서 이제는 저희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2016년 정도까지 진행하고 지금은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어 교재에 어떤 차별적인 용어가 있는지 모니터링 사업도 한 적 있었는데,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8년 전쯤에는 저희도 다문화 인권 강사 교육도 진행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인권 교육 차원에서 다문화 인권교육을 원하면 한 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워낙 다양한 곳에서 다문화 강사 등이 배출되기도 하고, 강사 고용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 현재는 하고 있지 않아요.

한부모 교육은 수요도 높고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문가 영역으로 성폭력 상담원 교육,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인권 지원단 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이예요. 그 밖에도 이주여성 리더들과 정책적인 연구나 네트워크를 통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 예정입니다.

외부에서 교육 요청이 올 때는 저희 단체 대표님 또는 사무국장님이 나가시고, 저는 주로 내부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맡고 있어요. 특히 저희 사무국장님이 베트남 출신이고 활동 14년차라 이주여성 당사자 교육을 하는 경우 자국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동기 부여도 됩니다.

교육에도 새물결이 필요

한편 이주여성들도 이미 수준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좀더 전문화된 교육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결혼이주가 급격하게 늘면서 벌써 한국에서 10년, 20년 이상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또한 이주여성 중 신규로 들어오는, 이제 막 결혼해서 들어온 초기 입국자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초기 입국자들의 욕구와 장기 체류한 분들의 욕구가 다른데 그것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고,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변화에 대한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이주자들의 가정폭력 피해 문제나 한국어 교육에만 집중해 왔지, 한부모 이주여성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좀 많다 보니 경제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교육에 참여할 여건이 안 돼 어려워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어 교육을 결혼이주자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주노동자도, 중도 입국 자녀도, 재외동포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대상을 넓히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관공서에서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주 내에서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반면 시민단체 영역은 대상이나 욕구에 더 다양하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교육에도 인권 감수성이 필요

2008년즈음부터는 당사자들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어만 습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 고민 하면서 중간에 컴퓨터 교육도 하고 상담원 교육도 해 왔어요. 이주여성 상담원 교육을 하면, 내담자는 외국인인데 상담하는 사람은 한국인이다 보니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상담하는 사람이 이중언어의 강점이 있는 이주여성이라면 전문 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니 성폭력 상담원 교육,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죠. 이미 다른 곳을 통해 상담원으로 양성되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성매매 피해를 본 여성이 통역을 의뢰할 때 성폭력, 성희롱 이런 단어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성희롱이라는 단어로 지금처럼 인식하는 건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나라의 언어로는 이런 단어를 통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성매매 피해자를 통역할 때도 많은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권 감수성,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실제 피해가 발생할 때 어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위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지원단 교육도 저희가 해 왔어요.

이주여성과 선주민이 함께

저희가 세미나를 한다고 홍보하면 이주여성들도 참석하시지만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한국인에게도 열려두기는 해요. 전문 영역에서 나온 교재를 활용해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영화를 다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상담소에서 법제화 이후 내부에서 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역으로 저희가 강사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주에 대한 문제,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 좀더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이주여성과 한국인이 섞여 교육을 받게 되면 한국어가 익숙한 한국인이 사실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토론에도 주도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주

여성은 자신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고 좀 위축되는 것도 있고, 발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에서 오신 분도 계셔서 저희가 교육 시작 전에 발언권이 이주여성들에게 먼저 갈 수 있도록 선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교육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이런 과정을 통해 인권 감수성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교육 대상을 모집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몇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어 4급 이상이라는 전제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주여성의 출신국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그것을 전부 통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이 있죠. 한부모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할 때는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녀와 동반되는 교육인 경우 자녀를 돌봐줄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지만 너무 어린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한부모 이주여성들이 경제적 활동과 자녀 양육을 모두 부담하는 상황에서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이주여성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시는 강사님들도 심사숙고하여 초청합니다. 이주 영역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강사로 오셔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알려주시고, 성폭력 상담원 교육의 경우에도 사이버 성폭력 문제 등 주요 이슈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주 여성에 대한 선 이해를 갖고 있는 강사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교육할 때는 주로 강사들에게 너무 한문이나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려요. 이미 이주 여성들에게는 한국어가 외국어인데 그 안에 또 영어와 한문을 섞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이론 공부도 있지만 주로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화를 보고 이야기한다거나 한 주제를 정해서 함께 토론하면서 핵심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죠. 상담의 경우에도 한

국민이 상담원이 되기도 하고 이주 여성이 상담원이 되어 교차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 표현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작업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약 2년째 한부모 여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활동도 오롯이 자신이 책임지고, 자녀 양육까지 다 감당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고 자녀와 소통도 매우 힘들어하더라고요.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세요”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잘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같이 캠프를 간 다든지 해서 미술 치료를 통해서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의 생각과 표현을 나눌 수 있도록 하죠. 한부모 여성들은 집단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국 출신의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이론화하지 않고, 결핍된 존재가 아닌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놀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참가자들의 평가도 매우 좋았습니다.

좀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주 여성들의 문제 혹은 필요 욕구를 현장에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자기 안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그러나 전진

아무래도 이주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느라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한부모 여성 대상의 교육을 할 때도 일요일에 하거든요. 저희도 근무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주말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려해서 통번역이 붙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그런 분들이 교육장에 왔을 때는 안쓰럽고 죄송한 마음이 커요. 그나마 한국어를 잘하는 분이 옆에 붙어서 설명해주는 것이 일부 조치들이죠. 최근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대면할 때는 질문하기도 편하고 모르면 옆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온라인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많이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주여성들이 기자재를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힘든 부분이죠.

저희가 이주여성 인권 주제로 20년 동안 활동해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범주가 사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으로 많이 맞춰져 있어요. 젠더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해 왔는데, 우리가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대상이나 그 범주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주 영역에서도 너무 다양한 분이 생겨나고 있고,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접하지 못했던, 이주민 보호소에 계시는 분들, 이주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재외동포 분들,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노후 문제도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현장의 욕구와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또는 이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가? 대상과 대상 사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그것을 사회에 설득하고, 이주 당사자들을 어떻게 이 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속 했던 것만 하는 것은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는 건강하지 않은 거죠. 현장에 대한 수요나 욕구에 좀더 예민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눈앞에 놓인 산적한 일, 적은 활동가의 수,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조금씩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토론회장을 좀더 넓히고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세우면서 새롭게 더 고민하며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시민교육, 교차적으로 만나기 위한 발돋움

- 민주시민교육 담당 활동가 간담회

진행자: 이진선

간담회 참여자(가나다순)

김승환(참여연대 선임간사)

김혜련(흥사단평택안성지부 사무처장)

신지선(녹색연합 활동가)

이지윤(전국YMCA연맹 국제협력팀 팀장)

진선: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선: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있고, 12년 됐습니다. 저희가 2010년에서 2012년 정도 까지 교육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그 사업을 담당했고, 현재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혜련: 저는 평택안성 흥사단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청소년 쉼터로 옮겼습니다. 지역에서 청소년 만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엔 서클형 평화교육 형태로 주제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환: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올해 9년 차입니다. 참여연대 내에서 평화국제팀, 시민참여팀을 거쳐 아카데미 느티나무라는 시민교육 부서에서 일을 했고, 현재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스모모라는 평화 교육 단체 교육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윤: 한국YMCA에서 일하고 있고, 근무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대학YMCA 조직을 담당할 때는 대학생과 만나면서 사회 참여교육을 진행했고, 현재는 청소년, 대학생 대상 다양한 형태의 지구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 현재 시민교육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워낙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활동가 정체성을 갖고 있다 보니 조금 다른 관점,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각 단체에서 현재 어떤 시민교육을 집중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선: 저희 녹색연합에서 교육 쪽 일을 줄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모집이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시민교육에 관심과 의지가 있었던 활동가가 있었을 때 사업이 확장되면서, 다른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 보면서 열심히 했지만 노후화가 없어서 그런지 지속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지지부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단체의 특성상 계속 자연으로 나가는 활동이 많거든요. 산양을 지키기 위해 산으로도 가야 하고, 4대강 사업을 모니터링하려면 현장으로 가야 하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교육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고민되었는데 현재는 활동과 연계한 교육으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울진에서 산양 조사를 같이 하면서 자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조류충돌방지 캠페인을 위해 세에 관한 교육도 받고, 어느 지역에 가서 새충돌방지스티커 붙이는 활동을 같이 합니다. 시민교육이라는 단독 카테고리 없지만 사업별로 교육을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과정을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윤: 저희 단체는 지구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고민하게 한다는 교육 목표는 모든 교육에서 동일하게 관통하고 있어요. 특히 YMCA 교육은 이론 중심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슈를 발굴하고, 그것을 우리가 배

왔던 교육과 연계해서 직접 자신의 힘으로 바꾸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들어 실행하는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합니다. 결국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YMCA는 4대 운동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교육운동 분야가 많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의 YMCA 지부별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자를 모집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연맹과 지역이 함께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성 교육은 잘되는 편이지만 지역YMCA별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 캠프 프로그램 등은 잘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진행하는 지역YMCA들의 소소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승환: 참여연대도 코로나19 상황 이후 참여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작년에 연간 55개 강좌를 쉬지 않고 열었습니다. 과거 2015년 이전 사업 자료를 보면, 유명 인사들이 와서 강의를 많이 했고, 참여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한 예로 김진숙 지도위원이 2012년 강사로 왔을 때 참여자가 70명 넘어서 강의실이 꽉 찼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후 2018년 김진숙 지도위원을 강사로 한 번 더 섭외했는데 25명 모이기도 쉽지 않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시민교육이 활성화되고, 유튜브, TV방송에서도 수준 높은 인문학 강좌를 손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서울시민대학 팸플릿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무료고요. 예전에 저희 아카데미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굳이 저희 단체까지 오지 않더라도 이제는 가까운 지자체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희가 개설하는 민주주의학교 같은 프로그램 등은 참여연대가 아니면 듣기 힘들긴 하지만, 그 외의 다른 강좌는 이제 사람들이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와 함께 사람들의 욕구도 변화한 것 같아요.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프로그램 중 직접행동을 기획하는 애드보커시 활동이나 국회 감시자 되기, 독서 진행자

되기, 소통 진행자 되기 등에는 스스로 참여하고, 자기 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늘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스스로 무언가 하려는 욕구가 많아져서, 이것을 어떻게 더 키워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혜련: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희도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림이 좀 그려 집니다. 평택은 서울과 가깝다 보니 지역에 남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2012년도부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퀄리티 높고 유명한 강사 불러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는데 너무 비슷하고 차별력도 별로 없고, 그냥 듣고 너무 좋았다, 그리고 끝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실제 자신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는 교육이 유행을 타더라고요. 이러한 방법론이 쏟아지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상세하게 기획하고 실습하는 시리즈를 다 짜서 떠 먹여주는 방식이죠.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은 할 일이 없잖아요. 이러한 교육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외에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근본적으로 단체의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 많은 활동가가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현재는 교육협동조합으로 전환, 확장 하면서 활동가 외에도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20명 정도 됩니다. 저희는 주로 나누고 성찰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적용해 보고 있어요.

진선: 다음 질문과 연결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교육 기획에서부터 진행, 평가 등 전반적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운 지점으로 남아 있나요? 한편 시민교육 활동가로서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나요?

승환: 제 개인적인 고민 지점이기도 한데요. 교육활동가의 여러 정체성, 전체 사업의 실무자, 관리자, 기획자, 조직가이기도 하지만 교육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 평가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 시민 운동계라는 큰 틀에서 시민교육을 조망하고,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기에는 일련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선: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게 생각 났어요. 제가 교육 기획을 하고 모집하고 강사도 섭외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뒤에 가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죠. 조직가,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좀 더 많이 부여 받았다면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현장으로 가는 활동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체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참여자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다리가 불편하지만 참여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산양이 가는 길로 가려면 그냥 산길도 아니고 바위를 타고 가야 하기도 하고, 평범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참여를 제약한다는 게 한계점으로 작동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단체 활동가 사이에서 최근 비거니즘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화두였어요. 저희 내부에서도 방향성과 합의된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비거니즘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가 한 교육을 완전히 기획해 내는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저는 수어를 배우면서 청각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다른 활동가들은 이런 걸 잘 못 느끼잖아요. 제가 무언가를 기획할 때 수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힘들더라고요. 활동가 사이에서도 이런 칸막이를 낮추는 일이 좀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승환: 저희가 해 본 시도를 떠올려 보면, 제주역사 기행 신청서에 성별란에 기타란을 추가해서 남녀 외 다른 성별을 기입할 수 있는 칸을 만드는가 하면, 강의실 간식대에 채식 김밥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부 수업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을 임시로 시행해 보았고, 이후에 사무처 전체 차원에서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받아서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윤: 저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희 단체는 교육이 진행되는 방식이 연맹에서도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크게 진행되는 교육을 예로 들면 커리큘럼을 만드는 팀에서 교육 내용을 만들면 전국의 지역YMCA에 있는 교육 담당 간사님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 내용을 토대로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YMCA 실무자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어떤 감수성을 이야기하고자 할 것인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직접 학교로 들어가서 교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1~2시간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감수성을 충분히 담아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직접 스스로 YMCA로 와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과 청년들 대상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YMCA에서는 실무자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담당해야 할 업무와 사안이 워낙 많다 보니 교육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기도 해요. 교육사업은 사실 크게 수익이 남지 않으니 대형 펀드레이징이 만들어질 때만 교육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가 펀드레이징이 끝나면 교육사업이 다시 축소되고는 했어요. YMCA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양성하는 것이 운동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데 청소년과 청년들을 양성하는 교육사업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혜련: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소위 진보적이고 이상적인 분들의 언어에서 느껴지는 감수성에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하다가 회원교육으로 가지고 와서 방향을 잡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먼저, 공간의 힘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세팅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현수막은 다 없애고, 미군기지가 있는 대추리에서 생산한 감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는 간식을 만들었어요. 둥글게 모여 앉아 자신을 내어놓는 훈련을 하면서 말랑말랑하게 분위기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에 어색해하고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모든 회의, 행사도 서클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활동가로서 교육가, 조직가 등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저도 고민스러운데요, 저희 단체의 경우에는 청년 활동가에게 교육 진행을 적극적으로 권해요. 처음에는 못 한다고 하지만 공동 진행으로 같이 하면서 혼자 진행도 해보고 그렇게 1년 동안 기획하고 평가합니다. 처음에는 버거워하지만 자신의 성장과 맞물려서 오랫동안 활동하게 되는 요소가 생기더라고요.

한편, 이런 한계도 있어요. 학교 현장과 행정과의 관계 속에서 한계를 느끼는데, 공간 확보나 세팅을 할 수 없는 여건과 시간 속에서 무조건 맞춰보라는 식으로요. 강사도 무조건 1명만 배치되어야 한다는 식의 보편적 요구 속에서 싸우고 있지만 어렵더라고요.

승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생각 났는데, 재작년에 시민교육 외의 기관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때 아주 핫했던 독서 커뮤니티 ‘트레바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독서토론회당 5만 원이라는 꽤 높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흥행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가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 진행자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누구도 대화를 독점하지 않는 굉장히 수평적이고 평등한 대화를 경험한 것 같아요. 시민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 트레바리라는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뭔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시도해야 하나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진선: 맞아요. 외부에서는 변화에 민감하지만 오히려 시민단체는 느리고,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도 종종 느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해요. 단체의 시민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현재 시도해 보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혜련: 저희는 집중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잘 나눌 것인가예요. 회의도 그렇고 교육에서도 보면 누군가는 독점하고 누군가는 늘 돋보여야 하고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

게 되거든요. 그런 요소를 불편하지 않게 세련되게 잘 없애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불편하게 받아들여서 저항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팀빌딩,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나눔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좀 처지거나 잘 이해를 못하고, 누군가는 잘 흡수하다 보면 격차가 발생하면서 순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윤: 현장에서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젠더 감수성이나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감이 큰 편이에요. 청소년 대상 교육은 학교로 들어가게 되는데 학교는 더욱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서 YMCA가 만나는 청소년, 대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예민한 주제로 더 말랑말랑하게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 받는 사람 구분 없이 좀더 평등한 워크숍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역별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간사들 간의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져 있고 지역 간 의견이 잘 교류되는 편이라 다양한 영역의 색깔이 교육에 묻어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커리큘럼을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간사들 간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교육 트렌드나 현재의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을 교육과정 안에 넣기 위한 부분도 신경 쓰고 있고요.

진선: 청소년 교육 나갈 때 백래시가 많은가요?

지윤: 저는 청소년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가 더 힘든 편이에요. 젠더 감수성 교육을 하게 되면 남성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고, 여성들만 얘기해요. 저희 교육 과정은 아무래도 여성이 좀 많은 편인데, 이 자리는 어떤 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도 남성들은 저희한테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시는 건가요?”라며 방어적인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여러 주제 중에서도 젠더 감수성 교육에서 어려움이 제일 많아요. 교육을 진행하는 간사들도 대부분 젠더 감수성 교육을 어려워하고, 스스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젠더교육 전문가를 따로 모

시키고 하는 게 나을지 늘 고민하게 돼요. 인권 감수성 교육은 바로 주제로 들어가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역할 카드를 사용해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역할카드에 다양한 종교, 성적체성,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역할로 활동을 진행하는데 수업 대상에 따라 역할카드 내용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늘 고민하면서 인권교육을 하면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장하며 살피고 있습니다.

승환: 시민교육을 하다 보면 저희 단체를 포함해서 대부분 관찮은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예를 들면 페미니즘 강좌 열면 페미니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끼리 부흥회하는 식으로요.(웃음) 저는 시민교육이 ‘태극기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가 늘 마음속에 화두예요. 정말 교육이라는 분야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같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다투고, 갈등하더라도 그러한 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역사기행 갈 때 설문지에다 성별을 남, 여 외에도 기타란을 추가한 것, 성중립 화장실이나 비건식 간식,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 등을 시도했던 이유는 시민교육의 장에서 다양한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혜련: 저희는 지역에서 극보수인 분들을 좀 만나거든요. 그런데 제일 경계되는 것은 “네가 날 감히 가르쳐?” 이런 거예요. 다른 시민교육이나 청소년 교육을 할 때도 늘 경계해야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경험이 있으니까 인도해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이런 관념을 버리고, 누구를 대상화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위트를 발휘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유머러스하게 순간을 넘기는 센스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리고 잘 질문해서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는데, 어떤 점이 중요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나요? 왜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런 질문으로 부드럽게 넘기면 공격성이 좀 내려가는 경험을 저는 몇 번 했어요.

또 교육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서로에게 피드백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요. 참가자 평가 말고 우리 진행자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솔직하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런 지점이 마음에 걸린다 등 바쁘지만 2주에 한 번씩은 꼭 서로 피드백해요. 그리고 평화교육과 관련한 스터디도 하면서 서로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앞에서 대부분 녹아져 있네요. 추가로 얘기하면, 저희도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단체에서 오셔서 감수성 교육을 받는데, 많이 채워져요.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신경을 안 쓰려야 안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당연히 감수성이 높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시민을 만날 때 몇 가지 장치를 만들어 냈는데요, 예를 들면 신청받을 때 불리고 싶은 이름이나 별명으로 받아요. 성별은 당연히 안 쓰고요. 교육이나 행사에서도 뒤에 ‘님’도 붙이지 않고 별명으로 불러주세요 하면 처음에는 어색해하시지만 분위기에 따라주시고 가실 때 편하고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얘기 꼭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행자에 따라 대처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스킬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끊는 것이 꼭 예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연습도 해보죠. 저는 얼마 전 어떤 동네 주민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관련한 교육을 했는데, 진짜 힘든 경험이었어요. 결혼은 언제 하나, 오늘은 왜 예쁘게 하고 왔냐, 이런 질문을 듣는데,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분위기를 잘 넘기시는 것을 보고 저도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진선: 각자 맡고 있는 교육의 맥락이 조금씩 다르고, 주로 만나는 참여자 층도 상이해서 고민이나 어려운 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맞닿아 있는 지점이 많네요. 지금 모이신 분들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민교육에서 평화, 환경, 노동, 젠더, 다문화 등 너무 제각각인 칸막이식 교육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차적인 시민교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선: 저희는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노동 분야와 교차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후 위기 취약 계층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노동자 계층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 배달 기사분, 건설업 종사자분 등 기후 위기의 증인이라는 콘셉트로 계속 모으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노동운동과 교차되고 있어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네트워크도 현재 거의 모든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새로운 단체와 함께 활동해 보는 것이 처음이라고, 신선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운동에서 교차되는 지점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어를 배우고 있다 보니 장애인 인권과 환경을 접목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분들은 워낙 정보 접근이 안 되다 보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죠. 아무리 자막으로 보더라도 문장의 문법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냥 우리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기획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활동을 만들어볼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가들도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고, 예민하고, 오지랖이 넓잖아요. 서로 공유하고 교류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차적인 활동이 많아질 것 같아요.

혜련: 저는 채식주의자인데, 예전에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경험 때문에 아예 그냥 내놓거든요. 그래도 제 존재 자체가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서 저는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교육에서는 이주민을 교육진행자로 내세웠어요. 이렇게 성소수자, 병역거부자 등 다양한 분들을 초대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어렵고 막연하게 생각되는데, 현장에서 그들과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차 지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을 자주 시도해 보는 것이 시민교육에서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 인권을 이야기할 때 청소년 진행자를 세웠거든요. 근데 청소년 진행자라고 교육비를 그대로 안 주더라고요. 경력이 없다, 전문적으로 배운 게 없다, 이런 행정적인 문제와 싸우고 도전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해 보여요.

지윤: 저희는 아무래도 여기 계신 단체들에 비해서 보편적이고 약간 포괄적 개념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지구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이런 교육 간의 교차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게 크게 다른 맥락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지향하는 것이나 담고자 하는 내용이 비슷한데 이들 교류가 내부에서도 사실 원활하지 않고 제각각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모아낼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다양한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오픈하는 것을 꺼리시더라고요. 세계시민교육, 지구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단체 간에 커리큘럼을 오픈하지 않으세요. 저는 커리큘럼이 공유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단체만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시민사회의 교육 발전이 되게 더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분명히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교육보다 우리 시민단체의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감수성이 있을 텐데 서로 단체 간에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고, 우리 단체만의 교육, 우리 단체만의 커리큘럼, 우리만 나가서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칸막이를 더 많이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하는 교육부터라도 다양한 시민단체와 NGO 영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승환: 저희는 예를 들면 사법 감시 관련 강좌에서 성폭력 이슈 판결문으로 읽어서 교차하는 시도를 했어요. 당사자들을 만나려는 노력을 해 왔어요. 장애인 인권활동가 당사자를 섭외하여 북토크를 열거나, 예술워크숍에 난민 사진작가를 섭외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새롭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 폴리아모리 가족, 성소수자 커플과 토크쇼도 했어요, 기획은 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는데 고독사 현장을 주로 담당하는 특수청소 노동자 등 일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만나려고 시도했습니다.

진선: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교육이 사람들과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공교육기관에서 시민교육이 많아지면서 시민단체가

살아남기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더 추가해 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혜련: 공공기관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공공기관은 자본과 정보가 많기 때문에 계속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저희는 청소년기관 같은 곳을 집중적으로 바꾸기 위해 2~3년간 노력을 엄청 기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공공과 상생하지 않고 우리끼리 살아갈 방법은 없어요라고 얘기를 자주 했죠. 혁신 교육지구 만드는 곳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끼리만의 노력이나 재원으로만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 고민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는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고, 그런 것을 발견하고, 더 크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승환: 시민교육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역할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부가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지만, 과연 베트남전쟁 당시 학살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병역을 거부할 자유, 이주민의 시민권까지 교육에 담아낼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국가가 말하지 않는 영역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것을 시민사회에서 교육으로 공유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일 중 하나라면 늘 우리의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필로그: 존재를 있게 하기 위한 잇기

이 작업을 하는 동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겪었다. 뒤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과속을 하다 결국 내가 운전하고 있던 차를 부딪쳤다. 그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몇 번 이야기하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나도 모르게 그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여성’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굳이 여기서 ‘성별’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운전의 능숙도는 젠더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여성’이 운전하는 것이 더 미숙하다는 고정관념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건가. 이렇듯 가끔 ‘내 안의 가부장성’이 튀어나올 때 깜짝 놀란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규범들이 체화되어 너무 익숙해진 탓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이런 자신들의 생각을 마주하고, 바꾸어 나가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의 관념은 더욱 더 단단해져서 좀처럼 흔들기가 쉽지 않다.

대중의 분노가 터져 나왔던 ‘N번방’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의 최초 취재자인 ‘추적단 불꽃’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대다수 기성 언론의 기자들은 디지털 성착취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에 대해 어떤 이는 언론의 고참 기자들의 현실 인식 문제를 비판한다. 입사 뒤 15년 정도 지나면 기자들은 데스크를 맡게 되는데, 직접 취재를 하지 않고 후배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반복된다.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되어 현실 인식이 과거에 묶이면서 옛날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것이다.⁷³⁾ 이것은 활동가들, 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나섰던 이들이 아집으로 뭉쳐 성찰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을 때 무엇이 바뀐다 한들 ‘제대로’ 바뀔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과 조건만이 유일한 참조 체계가 된다면, 우리는 점점 자기 세대를 넘어 상상하기 어려워진다.⁷⁴⁾ 페미니즘 관점은 매우 구조적이고 다양한 권력 관계를 분석하면서 운동과 삶의 지형이나 지향 또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 생

73) 박영홍, 「고참 기자들 ‘라떼’ 대신 현장 누비길」, 『한겨레21』, 2021년 7월 25일.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686.html.

74) 김현미(2021), 『페미니스트 라이프스타일』, 반비, 7쪽.

각한다. 피해 경험과 맥락도 해석, 비판,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못 봤던 것, 용인했던 것, 남용했던 것을 알아가는 성찰적 과정이 필요하다.⁷⁵⁾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다른 존재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무엇보다 시민교육 활동가들은 그 고민을 더욱 많이 해주리라 희망한다.

앞 장에서 활동가들과 만남에서 알 수 있었듯이, 교육은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함께 배우는 장이라는 것, 그리고 활동가들은 존재와 존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나’에게 교육은 ‘웰컴(welcome)’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이 지면을 통해 인터뷰에 참여해 준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많은 배움이 되었다. 그와 함께 처음 기획의 의욕과 다르게 쓰면 쓸수록 어렵게 느껴졌는데, 내용을 너무 납작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우리’를 사용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배제한 것은 아닌지, 너무 ‘시각’ 위주의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본다). 피드백을 통해 또 앞으로 논의 과정을 보완해 나가고 싶다.

75) 김현미(2021), 위의 책, 182쪽.

교육 기획부터 평가까지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

본문에 언급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제안을 통해 더 함께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강의 기획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 불특정 다수일 경우 다양한 참여자(젠더, 연령, 직업, 장애, 인종 등)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
- 교육 의뢰를 받았다면 참가자들의 사전 정보를 얻는 것은 필수!

강의 장소는?

- 교육장 주변과 내부(화장실 등)는 배리어 프리한지 점검!
- 참가자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했는지 살펴보기!

교육 도구는?

- 사용하려는 교육 도구가 누군가에게 불편하지는 않을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지 확인!
- 피피티 등 강의 자료에 고정관념 또는 과한 시각자료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 강의 진행

참가자들에게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친구’라는 호칭, 나이든 여성들에게 ‘어머니’라는 호칭 NO!)

참가자들의 외모, 옷차림, 목소리 등으로 성별 정체성을 추측하고 있는가?

‘정상가족’, ‘이성애’ 등을 기본으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강의하면서 사용하는 사례가 고정관념, 편견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외모에 대해 칭찬을 하거나 유머코드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강의 평가

- 동료들과 함께 수시로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필요! 함께 성찰하기!
- 평소 감수성을 쌓기 위해 공부하는 것 중요!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 권명아, 2019, 『여자때 공포, 젠더 어펙트』, 갈무리
- 김도현, 2019,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 봄
- 김민아, 2016, 『아픈 몸, 더 아픈 차별』, 뜨인돌
- 김원영, 2018,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계절
- 김은실, 2018,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휴머니스트
- 김현미, 2018, 「난민포비아와 한국의 정치적 정동의 시간성」, 『황해문화』 101
- 김희경, 2017,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 남미애·홍봉선·육혜련·김은경 (2012),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내실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러네이 앵겔른, 2017,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김문주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 로빈라일, 2020, 『젠더란 무엇인가』, 조애리 외 옮김, 한울.
- 미미 마리누치, 2018, 『페미니즘을 퀴어링』, 권유경, 김은주 옮김, 봄알람
- 박진빈, 2019, 「인종주의의 역사와 오늘의 한국」, 『역사비평』, 293-317
-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사라 아메드, 2017,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이경미 옮김, 동녘
- 수전 웬델, 2013,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그린비
- 수전 팔루디, 2020, 『다크룸』, 손희정 옮김, 아르테
- 시몬 드 보부아르, 2017, 『제2의 성1』, 이희영 옮김, 동서문화사
- 신지영, 2021, 『언어의 높이뛰기』, 인플루엔셜(주)
- 앤보이어, 2021, 『언다잉』, 양미래 옮김, 플레이타임
- 여성의 전화, 2020,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 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 염경미, 2018, 『선생님, 민주시민교육이 뭐예요?』 살림터
- 염운옥, 2019, 『낙인찍힌 몸』, 돌베개

- 윤형숙, 2003,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 심포지움 발표논문(미간행).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59-84.
- 이라영, 2018, 『진짜 페미니스트는 없다』, 동녘
- 이라영, 2020, 『폭력의 진부함』, 갈무리
- 이미화, 2021, 『수어』, 인디고
- 이민경, 2019,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 한겨레출판
- 이제오마 울루오, 2019, 『인종토크』, 노지양 옮김, 책과함께
- 이필구, 2018, 「민주시민교육과 영역별 교육」,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전국민주시민교육 토론회 자료집
- 이혜정 외, 2019,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 살림터
- 장은주, 2020,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우리는 시민입니다』, 피어나
- 전혜은, 2021, 『퀴어이론 산책하기』, 여이연
- 정수임, 2019, 『십대를 위한 동화 속 젠더 이야기』, 팜파스.
- 정혜윤 외, 2021, 『절멸』, 위크룸페스
- 정희진, 2017, 『낮선 시선』, 교양인
- 주디스 버틀러, 2015, 『젠더 허물기』, 조현준 옮김, 문학과지성사
- 지그문트 바우만, 2013, 『리퀴드 러브 : 사랑하지 않을 권리』, 권태우, 조형준 옮김, 새물결
- 천혜정, 2005, 「여대생의 체험을 통해 본 이성교제의 의미」, 『한국가족학회』, 17권 제3호.
- 하승우 외, 2013,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교육공동체벗.
- 황정미 외, 2009,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희정, 2019,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 오월의 봄
- Fausto-Sterling, A. (2000). The five sexes, revisited. *The sciences*, 17-23
- Garland-Thomson, R. (2002). Integrating disability, transforming feminist theory. *NWSA journal*, 1-32.

참고문헌 외에 추천하고 싶은 책

- 권김현영, 2020, 『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 휴머니스트.
- 김고연주, 2011, 『조금 다른 아이들, 조금 다른 이야기』, 이후.
- 김명희, 2019, 『당신이 숭배하든 혐오하든』, 낮은산.
- 김소영, 2020, 『어린이라는 세계』, 사계절.
- 김영옥·메이·이지은·전희경, 2020, 『새벽 세시의 몸들에게』, 봄날의책.
- 김지혜, 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 김초엽·김원영, 2021, 『사이보그가 되다』, 사계절.
- 나나 파워, 2018, 『도둑맞은 페미니즘』, 김성준 옮김, 에디투스.
- 롭 닉슨, 2020,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김홍옥 옮김, 에코리브르.
- 소준철, 2020, 『가난의 문법』, 푸른숲.
- 수나우라 테일러, 2020, 『짐을 끄는 짐승들』, 이마즈 유리, 장한길 옮김, 오월의봄.
- 시드라 레비 스톤, 2019, 『내 안의 가부장』, 백윤영미, 이정규 옮김, 사우.
- 앨리스테어 코크런, 2021, 『동물의 정치적 권리선언』, 박진영, 오창룡 옮김, 창비.
- 오드리 로드, 2018, 『시스터 아웃사이더』, 주해연, 박미선 옮김, 후마니타스.
- 은유, 2021, 『있지만 없는 아이들』,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창비.
- 이토 아사, 2020, 『기억하는 몸』, 김경원 옮김, 현암사.
- 일라이 클레어, 2020, 『망명과 자금심』, 전해은, 제이 옮김, 현실문화.
- 장애여성공감, 2018, 『어쩌면 이상한 몸』, 오월의봄.
- 정희진, 2016, 『아주 친밀한 폭력』, 교양인.
- 존 C. 머터, 2020, 『재난불평등』, 장상미 옮김, 동녘.
- 최지은, 2020,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겨레출판.
- 캐런 메싱, 2017, 『보이지 않는 고통』, 김인아, 김규연, 김세은, 이현석, 최민 옮김, 동녘.
- 트레시 맥밀런 코텀, 2021, 『시크THICK』, 김희정 옮김, 위고.
- 하재영, 2018,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창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8,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오월의봄.

한우리·김보명·나영·황주영, 2018, 『교차성×페미니즘』, 여이연.

2021 활력향연

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활력향연>은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개발하여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듭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펴냄 | 서울시NPO지원센터

발행 | 2021년 11월 26일

주소 | (04523)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2층

전화 | 02-734-1109

전송 | 02-734-1118

메일 | contact@snpo.kr

홈페이지 | www.snpo.kr



